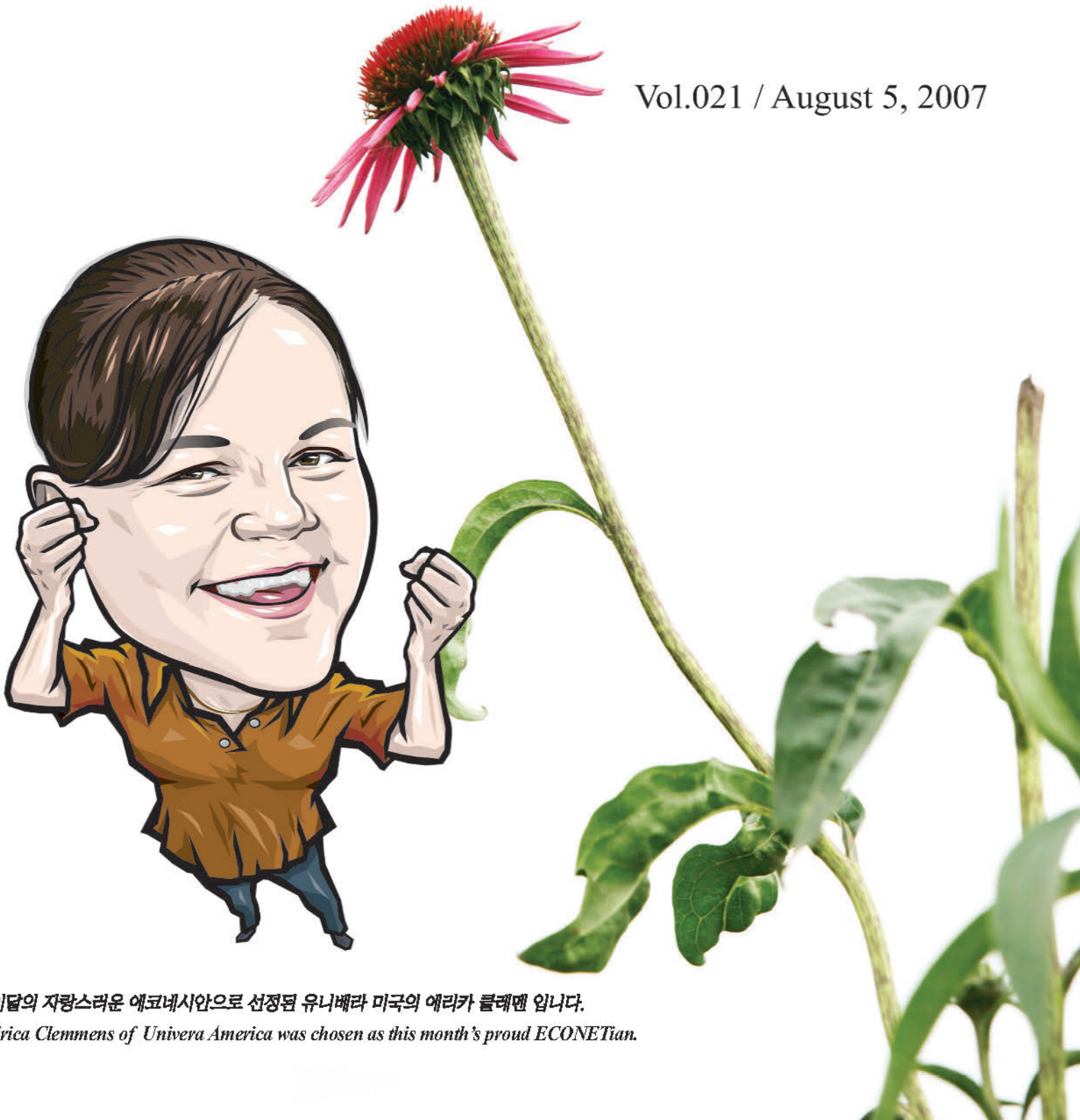


ECONET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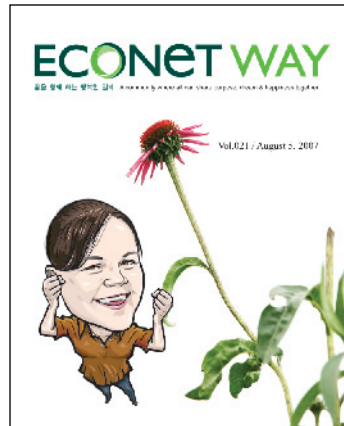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021 / August 5, 2007



이달의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으로 선정된 유니베라 미국의 에리카 클레멘 입니다.

Erica Clemmens of Univera America was chosen as this month's proud ECONETian.



Cover Page

사진 김종민 작가 캐리커처 장영석
유니젠 러시아 농장 주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 사진과 이달의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으로 선정된 에리카 클레멘스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담았다.

Photo by Jongmin Kim

Caricature by Yeongseok Jang

A caricature of Erica Clemmens who was chosen as ECONETian of the month is shown against a background of wild flowers that grow near Unigen Russian's farm.



43

ECONET Special

- 02 평전 '땅 위에 별을 심은 사람' • 내 나이 예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08 스페셜 리포트 • 6-시그마로 내이쳐택이 앞서간다.
- 12 웰니스 칼럼 • 아로마테라피 200% 즐기기 : 우리집 욕조에서 즐기는 아로마테라피
- 16 포커스 • 열정을 함께 했던 유니젠 글로벌 서밋

ECONETIAN

- 20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 • 슈퍼우먼 에리카 클레멘
- 24 고고우리부서 • 세계 최고 천연물 과학자들
- 40 에코넷으로의 초대 • 주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베라, 자연을 꿈 꾸는 수요음악회
- 44 우체통 1 • 담배에의 도전
- 48 우체통 2 • 뉴올리언스에서 보내는 편지
- 52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 사랑과 행복이 피어나는 '사랑 나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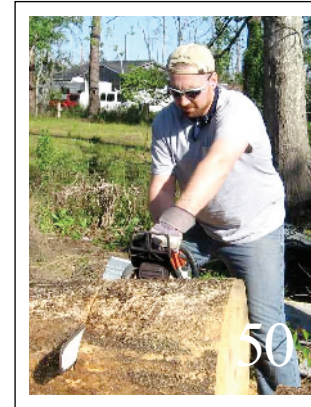


Culture & Life

- 56 추천도서 •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 60 Special Healthy Food • 가족과 함께 꾸미는 건강한 여름 식탁

Info

- 64 ECONET News Network • ECONET 자회사 소식
- 86 에코넷 사진컨테스트
- 90 퀴즈! 퀴즈!
- 91 함께 만드는 에코넷웨이



50



86

ECONET Special

- 05 Review of He Who Planted Stars on Earth
• At the Age of 60, What Should I Do, and For Whom?
- 10 Special Report • Naturetech, Moving Ahead with 6 Sigma
- 14 Wellness Column
• Enjoying Aromatherapy to 200% : Aromatherapy at Home in Your Bathtub.
- 18 Focus • Sharing Passions at Unigen's Global Summit

ECONETIAN

- 22 Exemplary ECONETian • Super Woman Erica Clemmens
- 24 Go! Go! Our Division • The World's Best Natural Products Scientists
- 42 Invitation to ECONET • Local Residents Enjoy Univera's Wednesday Concert: Dreaming of Nature
- 46 A Postbox 1 • Quit Smoking Challenge
- 50 A Postbox 2 • A Letter from New Orleans
- 54 Making a Happy Workplace Where Dreams Are Shared
• 'Sharing Love' Where Love and Happiness Bloom

Culture & Life

- 58 Recommended Books • Tuesdays with Morrie
- 62 Special Healthy Food • A Healthy Summer Meal Prepared with Your Family

Info

- 64 ECONET News Network • ECONET Subsidiary News
- 86 ECONET Photo Contest
- 90 Quiz! Quiz!
- 91 Join Us in Making ECONET Way



62



내 나이 예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인생이 뭔가를 아는 나이가 지천명, 오십이라고 했는데, 머리가 반백이 다 된 60에서야 인생이 뭘 줄 알다니.. 참 기막힐 노릇이다. 내 나이 예순... 남들은 이제 은퇴할 나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를 병에서 치유하고 활력있게 만들어준 알로에의 생명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

1989년 3월의 어느 날, “알로에”라는 생소한 식물이 건강 정보 프로그램의 전파를 탄 것이 기폭제가 되어 알로에 품귀 현상을 맞을 정도로 회사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불과 30억 원이던 연매출이 3년만에 100억 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다.

“사장님! 재고가 거진 반 바닥나고, 생산량이 달려서 지방에는 못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기계를 멈춰야 할 판입니다.” 땀을 흘리며 시찬이 말했다.

지난 달 갑작스런 냉해로 텍사스 농장의 알로에를 다 날려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한 달 분 가량의 재고도 바닥 보였다. 텍사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농장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여서 원료 공급은 막막했다. 병훈이 물량 확보를 위해 남미로 떠났지만 얼마나 구할 수 있을 지 의문이었다. 게다가 어디를 헤매고 있는 지 연락이 두절된 지 벌써 오래였다.

“아, 그러니께 사장님을 만나야 한다니께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연호는 무슨 일인가 하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지가 말ियो. 충북 제천시 알로에를 팔러 다니는디, 목이 빠져라 지다려도 알로에가 안와 그 사정 좀 따져 불라고 새벽밥 먹고 서울 왔시유. 하루에도 수십 리 눈길을 헤치고 알로에 한 병 갖다 주면 촌 노인네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읍어. 그 낙으로 다리품을 팔았는디. 알로에가 없다고 하면 나는 우찌고, 기다리는 촌 할매들은 사정이 어땡 겠소?”

중년 여인의 하소연을 잠자코 다 들은 연호는 그녀의 차가운 두 손을 잡았다.

“... 쪼매만 기다리소. 대신 알로에가 없어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중년 여인을 떠나보내고 연호가 사무실로 들어온 순간, 알로에를 구하러 남미로 떠난 병훈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아.. 사장님!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인근 나라 농장까지 살 수 있는 건 다 샀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한 달 만에 이나마 구할 수 있던 것도 다행이예요. 이제 이만하면 원료 없어서 회사 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야! 이노마야 니 지금 정신이 있는 기고 없는 기고? 아픈 사람들한테는 그 한 달이 일 년 같을 기다. 그래, 니는 회사만 안망하고 지대로 돌아가는 것만 대수냐? 지금 제천시 판매원이 왔다 갔다. 몸이 안좋아 드러누븐 사람들은 그 아지매만 눈 빠지게 기다린다 카더라. 니가 한달동안 여유부리고 있는 새 건강이 더 나빠지른 니가 책임질 끼가?”

연호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대체 누구를 향해 화를 내고 있는지 자신이 부끄러웠다. 병훈을 향한 외침은 바로 스스로에게 내리꽂는 비수였는지 몰랐다.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타고 100억 매출의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원료 공급에 차질만 없다면 100억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냉해 때문에 모든 게 물 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안타까움, 거기다 피땀 흘려 개척한 알로에 시장을 놓쳐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애간장이 다 탈 지경이었다. 그러다 제천 아줌마를 만난 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부끄럽다. 지금까지 내 살 길만 생각했지 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구나. 촌 아지매가 나보다 낫다. 아픈 사람들한테는 알로에가 필요하고, 알로에는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이 아닌가. 진짜 위기는 이 엄연한 진리를 잊고 있던 내 자신이 아니었나..’ 하고 연호는 생각했다.

병훈의 전화를 끊고, 연호는 시찬과 함께 건너편 건물 귀퉁이 칼국수 집을 찾았다. 뜨거운 칼국수 국물이 속으로 들어가자 연호는 정신이 다 맑아지는 것 같았다. “시찬아, 내는 오늘 제천 아지매를 만나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다. 내는 앞으로 돈 된다 싶으면 이것저것 손대고, 빚 얻어서 덩치 불리는 그런 사업은 절대 안할 거다.”

“... 그래도요, 사장님. 우리 보다 작은 회사도 주식도 사 모으고, 그 뭐냐, 업종 다각화다 해서 여러가지 해보면서 짹짹하게 재미도 보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만 고집하는 거 아닌가...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니 말도 일리는 있다. 그런데 말이다.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하면서 우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될 수 있겠노.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백 년, 이백 년 가는 기업을 만들 수 있겠나? 하나라도 제대로 할라든 계속 투자하고 연구하고 고민도 해야 하는 거라. 한눈 팔 여유가 어데 있겠노. 최고 품질을 가진 제품을 만들려면 먼저 알로에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랄라든 재배에서부터 원료생산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라. 좋은 원료로 제품을 만들고 또 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팔아야 한다. 남들은 미련스럽게 한 우물만 판다고 손가락질하라 캐라. 내는 원료에서부터 판매, 연구까지 우리가 한다면 알로에에 한해서는 세계 최고기업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

“...” 시찬은 연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알겠나?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 그리고 그 혜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작게라도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내 목표인 거라.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사업을 할 생각이면 진즉에 때리겠다. 나를 살리고, 내가 신세진 이 세상에 하나는 남기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나? 내는 이 사업이 그랬으믄 한다.”

연호의 말은 자기 자신에게 향한 엄중한 경고 같은 것이기도 했다. 아무리 돈이 벌려도 다른 곳으로는 한눈을 팔지 않겠다는..!

시찬을 먼저 들여보내고 연호는 찬찬히 성수동 거리를 걸었다.

‘인생이 뭔가를 아는 나이가 지천명, 오십이라고 했는데, 머리가 반백이 다 된 60에서야 인생이 뭔 줄 알다니.. 참 기막힐 노릇이다. 내 나이 예순... 남들은 이제 은퇴할 나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를 병에서 치유하고 활력있게 만들어준 알로에의 생명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

마음 속으로 잔잔한 웃음소리가 퍼지는 듯, 차갑게 코끝을 스치는 청신한 바람이 연호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문선유 지음, <땅위에 별을 심은 사람 - 청강 이연호를 기리며>에서 발췌

At the Age of 60, What Should I Do, and For Whom?

‘They say you come to understand life at 50, but it took me 60 years to gain that understanding. How shocking... 60 years of age... Everyone else thinks that’s the age for retirement, but for me it’s only the beginning. Aloe cured me of my illness and gave me back my vigor; I need to convey its vital force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One day in March 1989,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a newfangled plant called ‘aloe’ on a health information program, the company was enjoying its most prosperous period yet. Consumer demand was so high that the market was experiencing an aloe supply shortage. The company’s annual sales, just 3 million dollars three years ago, were fast approaching the 10 million dollars mark.

“Boss! Our stock is down to half, and production output is so far behind the market demand that we’re unable to ship anything outside of Seoul. At this rate, we might have to shut down the machines altogether,” lamented Sichan, with perspiration running down his face. Due to unexpected cold damage the previous month, the company had lost the entire aloe crop at the Texas farm. Even the remaining stock, barely a month’s supply, was fast dwindling. The cold damage had afflicted not just the Texas farm but also another farm in the nearby region, which meant that acquiring new raw materials was impossible. Bill had flown out to South America to procure new materials but there was no telling how much he would be able to bring back. What’s worse, his present whereabouts were completely unknown; it had been long since Yunho had heard back from him.

“I’m telling you, I have to see the Boss!”

Roused by a sudden ruckus outside, Yunho opened the door and went outside to see what was going on. “Please hear me out. I go around selling aloe in Jecheon, Chungcheongbuk-do, but no matter how I waited, there was no sign of a new shipment. So I woke up at the crack of dawn and hurried up to Seoul. I walk dozens of miles each day and wade through snow to sell your product; you should see how just one bottle of Aloe lights up the faces of those elderly country folk. Seeing their happy faces gives me the energy to

walk so far and wide, delivering my goods. But if there's no aloe, what am I supposed to do? And what are those old folk going to do, who are watching and waiting everyday?"

Yunho listened to the woman's plaint in silence, then firmly grasped her cold hands in his.

"... Please wait just a little bit longer. I'll make sure that you never suffer from a shortage of Aloe again."

When Yunho returned to his office after the woman's departure, he received a phone call from Bill, on his Aloe-hunting trip in South America.

"Father! I mean, Boss! I purchased everything I could from Mexico and all the adjoining countries. It was hard going, but it's wonderful that we were able to procure this much in a single month. With this new stock, the company won't have to close its doors."

"What? Is that all you can think about? To all those ailing people out there, that month must have felt like a year. Is the company's wellbeing all that's important to you? A saleswoman from Jecheon was just here. She says that the sick and elderly down there are counting the hours for her to show up at their door. What are you going to do if their health gets even worse while you're dallying around for a month?"

Yunho hung up the phone. He was mortified to realize that he didn't know who he was really mad at. The upbraiding he'd given Bill might in fact have been a sharp knife he was driving into his own heart. After a steep rate of growth, company sales were on the verge of hitting the 10 million-dollar mark. If raw materials supply held up, even further growth was just a matter of time. But the recent cold damage had threatened to destroy everything. The intense anxiety caused by this crisis was made even worse by the thought that the hard-won Aloe market, which Yunho had poured his blood and sweat into, might slip out of his hands. It was just at this juncture that the woman from Jecheon had come along and made him look back upon himself.

'I am so ashamed. I was so preoccupied with finding a way out for myself that I never even considered those people. That country woman is a wiser person than I am. Aloe is a necessity for the sick; it's a gift from nature that protects our health. The real crisis was my losing sight of this profound truth,' thought Yunho.

After the phone call, Yunho accompanied Sichan to a noodle soup place at the corner of the building cross the street. As the hot soup slipped down his throat, he felt clarity return to his head.

"Sichan, I realized a lot of things after meeting with that woman from Jecheon. I'm never going to run the kind of business that dabbles in anything that might bring in cash, and gets into debt to bulk up in size."

"But still, Boss, companies even smaller than ours buy different stocks and diversify their business. I hear they enjoy quite a tidy little profit from that sort of thing. Sometimes, I wonder if we're being too obstinate about sticking to just one thing."

"You certainly have a point. But you know, how can we become an expert in one field, and become the best at it, if we dabble in one thing after another? How can we build a company that lasts a century-or two, even-with that sort of attitude? Doing just one thing properly requires ceaseless investment, research, and thought. There's no time for distractions. To make the highest-quality product, we must first understand Aloe thoroughly, and to do that, we must start by growing and producing our own raw materials. The key is to make products using good resources that are sold properly by people armed with accurate information. Let everyone else laugh at us for sticking to just one thing. I firmly believe that we can be the best in the world in the field of Aloe if we take on the entire process from raw materials to sales to research."

"....." Sichan listened to Yunho in silence, thinking over the significance of his words.

"Do you understand? To become the best in our field, and to share the privileges of that position with others and contribute to society-those are my goals. If I was only out to fill my own belly, I would have quit this business a long time ago. We must provide for our own lives, but also leave something behind for the world in repayment for its bounties. That's my hope for this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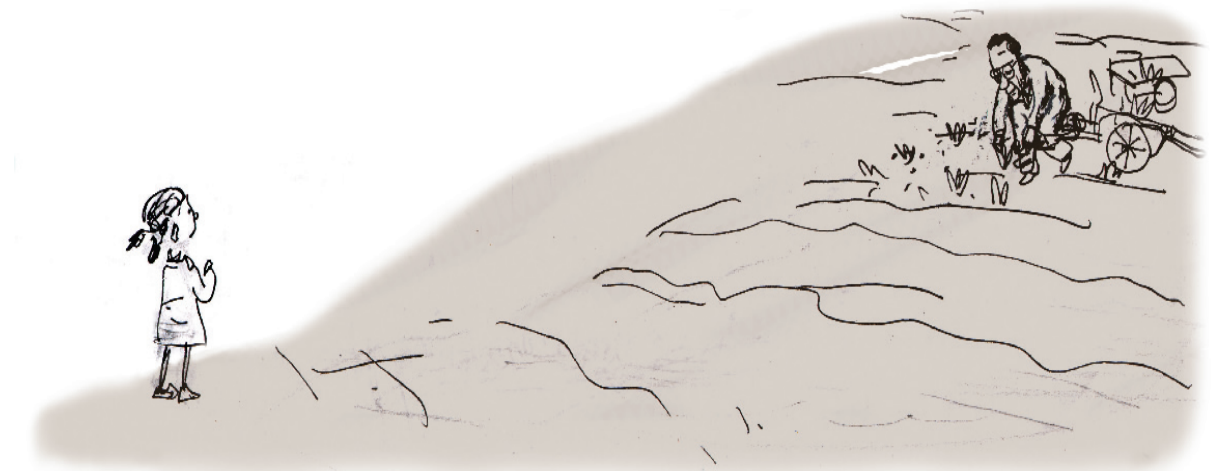
Yunho's words to Sichan were also a stern warning directed at himself. He was vowing that he would not be led astray by distractions, no matter how lucrative they appeared to be.

Having parted with Sichan, Yunho sauntered along the streets of Seongsu-dong.

'They say you come to understand life at 50, but it took me 60 years to gain that understanding. How shocking... 60 years of age... Everyone else thinks that's the age for retirement, but for me it's only the beginning. Aloe cured me of my illness and gave me back my vigor; I need to convey its vital force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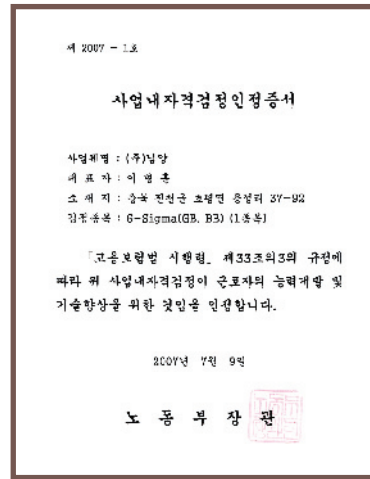
The sound of gentle laughter seemed to reverberate in his heart. The cold, clear breeze brushed Yunho's coattails as he walked.

Excerpted from Seonyu Mun's *The Man Who Planted Stars on Earth: In Memory of Yunho Lee*



6-시그마로 네이처텍이 앞서간다.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업계 최초로 6-Sigma 노동부 인증



글 정형철 대리, 연구개발실 품질혁신팀, 네이처텍

2007년 7월 9일, 네이처텍 역사에 기록될 소중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그것은 바로 지난 2006년 2월부터 품질혁신, 원가경쟁력 강화, R&D역량강화, 신규시장 개척 및 영업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네이처텍이 도입한 6-Sigma 경영혁신이 노동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업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부로부터 6-Sigma 인증을 받은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00년 삼성SDS(주)가 첫 타자였고, 얼마 전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노동부 인증을 받았다 하여 대대적인 행사와 함께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만큼 노동부 인증을 받는 것이 만만치 않는 일이고, 각 기업들이 회사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생각하기에 건강기능식품업계 최초로 노동부 인증을 받은 네이처텍으로선 작은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지난 2006년 2월 시작된 6-Sigma 경영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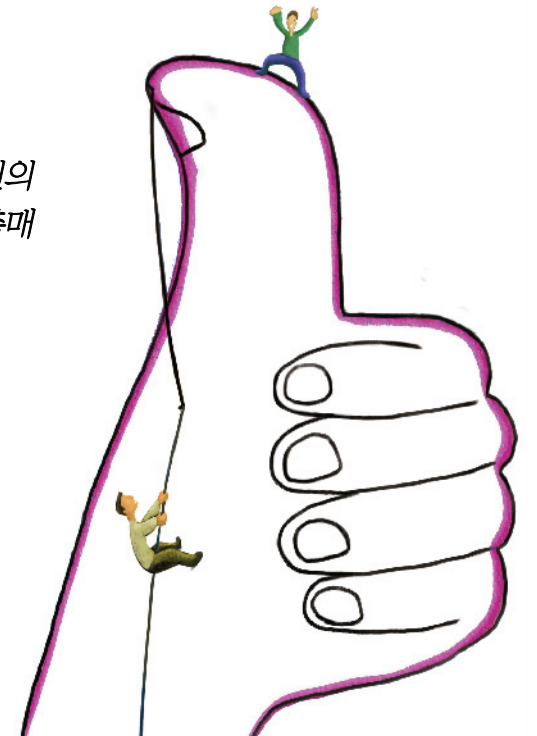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기업으로써 ECONET VISION인 천연물 시장에서 영원한 세계 1위 기업을 달성하기 위해 네이처텍 직원들은 '6-Sigma'라는 압박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공식으로 인해 '6-Sigma'라는 압박을 등정하는 루트를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인류에게 보다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사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리게 하여 6-Sigma가 정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자 쉽게 이끄는 길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알로에버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화장품 품질평가 System 구축을 통한 펌프불량 개선, 액상 자동라인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소-10 경도 개선을 통한 클레임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게다가 6-Sigma 경영혁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인력인 BB(Black Belt), GB(Green Belt)를 각각 2명씩 배출하게 됨으로써 자신감은 더욱 충전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약 1년에 걸쳐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획득한 자격인증을 타기업에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네이처텍은 국가기관인 노동부로부터 인증

무엇보다 가장 큰 효과로 생각하는 것은 자격인증을 받은 개개인의 자부심 고취와 전사적으로 활발하게 6-Sigma활동을 전개할 촉매가 됐다는 점이다.



을 받는 것이 최우선임을 깨닫고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 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 자격검정에 대한 인증은 총 7가지의 큰 항목에 부합되는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사를 마친 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뒤에야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뤄져 있다.

네이처텍은 2007년 3월 28일 사업 내 자격검정 인증에 필요한 7가지 항목의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서류심사가 통과되길 기다렸다. 다행히 얼마 뒤 서류심사가 통과되고, 4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전략팀, 한국표준협회 식스시

그마아카데미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의 현장 실사를 받게 된다. 엄격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철저하게 현장을 분석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긴장했는데, 드디어 2007년 7월 9일 노동부 인증을 받게 된 것이다.

6-Sigma활동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무척 가슴 뿌듯했는데, 무엇보다 노동부 인증취득에 따른 효과를 몇가지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첫째, 연간 최대 1,200만원의 검정운영비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둘째, 대외적으로 6-Sigma활동에 따른 자격 인증시 그 신뢰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효과로 생각하는 것은 자격인증을 받은 개개인의 자부심 고취와 전사적으로 활발하게 6-Sigma활동을 전개할 촉매가 됐다는 점이다.

노동부 인증을 계기로 ECONET 전체로 6-Sigma경영혁신 활동이 전파되어 ECONET VISION인 천연물 시장에서 영원한 세계 1위 기업을 달성하기 위한 비상의 나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6 - Sigma

Naturetech, Moving Ahead with 6 Sigma

Naturetech, First Health Food Company to Receive 6-Sigma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Labor

By Hyungchul Jeong,
Assistant Manager, Research Development Division, Quality Innovation Team, NatureTech

A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history of Naturetech was achieved on July 9, 2007.

Naturetech's 6-Sigma management processes were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Labor on January 2006 and they have been implemented to achieve quality improvements, costs savings, stronger R&D investments, successful expansion into emerging markets, a stronger sales force, and better executive training. Only a few companies have received 6-Sigma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Labor. In 2000, Samsung SDS was the first company to receive 6-Sigma certification and Shinhan Bank recently became the first bank to receive the same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Labor. Shinhan Bank subsequently held a large promotional event to commemorate their 6-Sigma certification and there was extensive media coverage of this achievement.

It is very difficult to receive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Labor and many companies are keenly aware of the future benefit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adoption of 6-Sigma practices. Therefore, it is a significant milestone for NatureTech to become the first health food company to receive 6-Sigma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Labor.

NatureTech adopted 6-Sigma management processes on February 2006!

As a specialized health food company, Naturetech worked hard to adopt 6-Sigma practices in order to realize its ECONET Vision and stay ahead as the global leader in the natural food market. At first,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in learning the special terms used in 6-Sigma and understanding the complicated equations. But we were determined to master 6-Sigma practices because we wished to improve the way our company develops and produces fresh, healthy foods for our customers. So with our new perception of 6-Sigma as a method to reach our goals, we redoubled our efforts and focused on learning every 6-Sigma practice.

As a result of our efforts, we were able to improve the Aloever processes, which led to increased productivity. Improvements were made in reducing pump defects through the adoption of a quality control system in the cosmetics line. Productivity levels were raised another notch by streamlining the liquid automated line processes. Customers' complaints were reduced after we improved the hardness of enzyme.

More importantly, we produced two 6-Sigma Black Belt experts and another two Green Belt experts from our company ranks who oversee the adoption of 6-Sigma across the company.

But even after spending a year to acquire knowledge

Another important intangible benefit is the pride that each of our employees will have for our company and the renewed enthusiasm for implementing 6-Sigma across the board.

6 - Sigma

about 6-Sigma and produce 6-Sigma experts who apply their expertise on numerous company-wide projects, other companies would not recognize our 6-Sigma expertise. Thus, we decided that it was paramount to have Naturetech receive 6-Sigma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Labor and we proceeded to submit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The certifying process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Labor covers seven main areas and the first step is to provide company documents related to these seven categories in the 6-Sigma process. If the application is approved after meeting certain standards, then an evalu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6-Sigma experts, will visit the company for inspections. After passing the grueling judging processes, the Minister of Labor will personally sign and issue the 6-Sigma certification.

Naturetech submitted related documents to the Ministry of Labor on March 28, 2007 and waited for the results in the first step in receiving 6-Sigma certification. Fortunately, we heard good news that our application was approved. On April 24, 2007, an assessment and evaluation team from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nd researchers from 6-Sigma Academy of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visited our company to conduct a field survey to judge

our 6-Sigma processes. We knew their reputation for being very thorough in their inspections and it turned out to be true when they carried out a full review of our processes and asked penetrating questions. And at last, we finally received 6-Sigma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Labor on July 9, 2007.

I am especially proud of this achievement since I was a part of the 6-Sigma team. But most importantly, our company can gain several immediate benefits after obtaining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Labor.

First, we will receive a maximum of 12,000 dollars a year in supporting grants for the next three years from the government. Second, we will now be recognized by other Korean companies for our 6-Sigma expertise. Another important intangible benefit is the pride that each of our employees will have for our company and the renewed enthusiasm for implementing 6-Sigma across the board.

With our 6-Sigma practices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Labor, we will spread 6-Sigma practices across the ECONET family to realize our ECONET Vision and become the world leader in the market for all-natural products.

Wellness



아로마테라피 200% 즐기기: 우리집 욕조에서 즐기는 아로마테라피

글 권수남 대리, CTO실, 에코넷 한국 홀딩스

아로마테라피란?

‘아로마(aroma)’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향료(spice)’에서 유래한 것으로 ‘향(incense)’ 즉, 냄새를 의미한다. ‘테라피(therapy)’라는 단어는 ‘치료’를 의미하므로, 아로마테라피는 곧 ‘향기를 통한 치료’를 말한다.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최고(最古) 기록은 기원전 289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방향성 물질(에센셜 오일/방향유)을 종교의식이나 의학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중국 사람들은 아로마를 기원전 2000년경부터 침술, 마사지, 목욕, 흡입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아로마테라피에 관한 최초의 현대적 연구는 1928년 프랑스의 르네 모리스 가트포스(Rene Maurice Gattefosse)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의 연구는 재미있게도 우연한 사고에 기인하였다. 어느 날 향수공장에서 실험을 하던 중, 가트포스는 서로 다른 종류의 향을 혼합하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게 된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데인 곳을 식히기 위해 라벤더 오일이 담긴 통에 손을 담궜는데, 화상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데인 자리가 금방 낫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가트포스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종류의 에센셜 오일에 대한 연구와 실험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방향성 물질(에

센셜 오일)이 피부에 쉽게 스며들고 피와 같은 인체의 과세포질 체액과 잘 혼합됨으로써 살균, 소독, 진정 효과가 있음을 밝혀낸다.

가트포스의 발견 이후 약 1세기가 지난 오늘 날, 아로마테라피는 수많은 스파들의 프로그램에 인기리에 채용되고 있고, 에센셜 오일이나 양초 같은 제품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아로마테라피의 다양한 쓰임 가운데 목욕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다. 아로마테라피를 목욕에 잘 활용하면 우울증, 스트레스 등을 개선하거나 관절염, 등통, 근육통, 두통 등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소화 촉진이나 숙면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에센셜 오일만 있으면 호텔의 스파가 부럽지 않은 황제·여왕 목욕을 집에서 즐길 수 있다. 그 비법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목욕종류	에센셜 오일 사용량 (방울)	적정 온도	입욕 시간	효과
일반 목욕(전신)	5-6 방울	42°C 또는 107.6°F - 아침 38°C 또는 100.4°F - 저녁	15 분	· 전반적인 스트레스 해소
반신욕(배꼽 아래 부위만 입욕)	4 방울	38°C ~ 39°C 또는 110.4°F ~ 102.2°F	20 분	· 혈액 순환 · 오한
좌욕(통에 물을 받아서 함)	3 방울	38°C ~ 39°C 또는 110.4°F ~ 102.2°F	10 분	· 치질 · 변비 · 복부 냉증
팔꿈치욕(통에 물을 받아서 함)	3 방울	38°C ~ 39°C 또는 110.4°F ~ 102.2°F	10 분	· 뻣뻣한 팔과 어깨
수욕(통에 물을 받아서 함)	2 방울	42°C 또는 107.6°F	10 분	· 건조한 손 · 뻣뻣한 팔 · 눈의 피로
족욕(통에 물을 받아서 함)	2 방울	42°C 또는 107.6°F	15 분	· 다리 피로 · 혈액 순환 · 생리통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6가지 목욕 종류에 대해 소개했는데, 이제 그에 어울리는 에센셜 오일의 종류와 효과에 대해 목록으로 정리했다.

에센셜 오일 종류

아로마 종류	효과
장미	식욕 제어, 우울증, 생리불순, 세포 활력
녹차	지방 분해
로즈마리	기억력 개선, 두통, 사고력 증대, 비염
치자	면역체계
딸기	공포심, 마인드 컨트롤
말리	수면, 민감한 성격의 진정효과
소나무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 혈액 순환, 알레르기 예방, 소독, 냄새 제거
하이신스	공기 정화, 악취 제거
사과	활력 증강
나목풀	기침, 감기, 기관지염, 수면, 긴장 및 히스테리 해소
라벤더	천식, 기관지염, 수면, 우울증
삼나무	지성피부, 여드름, 두피 질환
유칼립투스	기침, 감기, 기관지염, 열
고수	신경계통 활력증강, 류마티스성 통증 감소, 식욕 개선
레몬	산도, 관절염, 빈혈, 기침, 감기, 식욕 개선, 벌레 물린 곳
일랑일랑	긴장완화, 근육 긴장 감소, 항우울증
제라늄	여성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 긴장 완화 및 기력 증대
페퍼민트	두통, 근육통, 소화 장애(느린 소화)
클래리 세이지	천연 진통제, 근육통, 긴장 완화, 불면증
티 트리	효모균성 질염, 무좀, 조크 양진, 백선 등 모든 종류의 진균감염 치료와 면역 체계 증강
로만 카모마일	긴장 완화, 불면증, 불안, 근육통 및 긴장, 상처 및 감염

에코네시안 여러분! 오늘 퇴근 후에 아로마 목욕 어떠세요? 하루종일 일하느라 쌓인 피로와 긴장을 말끔히 해소시킬 나만의 목욕법!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에센셜 오일을 골라 누긋하게 집 욕조에 앉아 다아질링 한 잔 마시며 잡지를 뒤적이다 보면, 어느새 신선이 된듯 향긋한 냄새와 보드러워진 피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Wellness



Enjoying Aromatherapy to 200%: Aromatherapy at Home in Your Bathtub.

By J. Soonam Kwon, Assistant Manager, Division of CTO, ECONET Korea Holdings

What is aromatherapy? The word “aromatherapy”, the word “aroma” originates from the Greek word “spice.” Aroma means “incense” or smell and therapy means “treatment” whereby it all means “treatment by incense”.

The earliest recorded history of aromatherapy dates back to around 2890 BC, where the ancient Egyptians used aromatic substances (essential oils) for religious and medicinal purposes. Then the Chinese in around 2000 BC used essential oils in acupuncture, message, baths, and inhalations. (Source : www.indiadiets.com/Alternative%20Healing/Aroma_therapy.htm)

By 1928, a French chemist Rene Maurice Gattefosse first embarked on modern study in aromatherapy, ironically, by an accident. During one of his experiments at a perfume factory, he burnt himself by accident while mixing different types of incense. Almost by instinct and desperate to cool himself off, he put his hands in a bucket of lavender oil. There, he instantly felt the ease and relief of his pain and noticed that the burnt area was being quickly healed. With this to start, he ignited on experimenting other types of essential oils, and subsequently, his work showed that the aromatic

substances (essential oils) can sterilize, disinfect, and calm by very easily being penetrated into the skin and mingle with our body’s extra-cellular liquids like blood. (Source: National Association for Holistic Aromatherapy)

Today, after nearly a century since such discovery, aromatherapy is as prevalent as it speaks for itself through treatments offered at various types of spas, products like candles, and of course essential oils, and it’s become very much part of our lives. Among many ways in which you can enjoy aromatherapy, you cannot overlook the pleasure it can bring you while in your bathtub. When done properly, you can expect improvements on depression, stress, arthritis, back problems, muscle aches, headaches, digest problems, a good night sleep and so forth.



Here are some of the various types of “baths” you can enjoy at home and how to enjoy them more effectively.

Types of Bath	Drops of Essential Oils	Ideal temperature	How long you should stay in the tub	Effective for
Ordinary bath (whole body)	5 - 6 drops	42°C or 107.6°F - Morning 38°C or 100.4°F - Evening	15 minutes	• Relieves stress
Half bath (soaking your body below your belly button)	4 drops	38°C ~ 39°C or 110.4°F ~ 102.2°F	20 minutes	• Blood circulation · Chill body
Sitz (hip) bath (in a bucket)	3 drops	38°C ~ 39°C or 110.4°F ~ 102.2°F	10 minutes	• Hemorrhoids · Constipation · Chill stomach
Elbow bath (in a bucket)	3 drops	38°C ~ 39°C or 110.4°F ~ 102.2°F	10 minutes	• Stiff arms and shoulders
Hand bath (in a bucket)	2 drops	42°C or 107.6°F	10 minutes	• Dried hands · Stiff arms · Tired eyes
Foot bath (in a bucket)	2 drops	42°C or 107.6°F	15 minutes	• Leg pain · Blood circulation · Cramps from period

So now that you have 6 different types of baths to indulge yourself on, all you need is some of the best essential oils that can optimize your aroma bath experience. How about getting yourself some relaxing music, too? Then, you’ll be all set for a perfect aroma journey! Here are some of the most used essential oils you can benefit from depending on your needs.

Types of Essential Oils :

Type of Aroma	Effective for
Rose	Appetite control / Depression / Irregular menstruation / Revitalizing cells
Green Tea	Dissolve fat
Rosemary	Memory / Headache / Bringing clarity of thoughts / Rhinitis
Gardenia	Immune system
Strawberry	Cold feet / Mind control
Night Jasmine	Sleeping / To ease or calm down sensitive personality
Pine	Stress or tiredness relieve / Blood circulation / Fighting allergy /Disinfect / Getting rid of odor
Hyacinth	Air refresh / Getting rid of bad odor
Apple	Energy boost
Basil	Whooping cough / Cold / Bronchitis / Sleeping / Relieves tension and/or hysteria
Lavender	Asthma / Bronchitis / Sleeping / Depression
Cedar wood	Oily skin / Acne / Scalp disorders
Eucalyptuses	Coughs / Cold / Bronchitis / Fever
Coriander	Rejuvenating nervous system / Reducing rheumatic pains / Improving appetites
Lemon	Acidity / Arthritis / Anemia / Coughs / Cold / Improving appetite / Insect bite
Ylang Ylang	Relaxation / Reducing muscle tension / Antidepressant
Geranium	Helping balance hormones for women / Both relaxing and uplifting
Peppermint	Headaches / Muscle aches / Digestive disorder (slow digestion)
Clary Sage	Natural pain killer / Muscle aches and pains / Relaxation / Insomnia
Tea Tree	Treating all sorts of fungal infections, including vaginal yeast infection, athletes foot , jock itch, and ringworm / Boosting immune system
Roman Chamomile	Relaxation, insomnia / Anxiety / Muscle ache and tension / Wounds, infection



To all ECONETians! How about an aroma bath tonight after work? Try Roman Chamomile for total relaxation and a good night sleep to get refreshed for tomorrow!

열정을 함께 했던 유니젠 글로벌 서밋



글 장미라, 총무인사팀, 유니젠 한국

제 10회 유니젠 글로벌 서밋이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유니젠 한국의 사옥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는 본 서밋은 유니젠을 세계 천연물 업계의 대표적인 연구소로 성장시킨 획기적인 연구성과와 마케팅 비법을 공유하는 에코넷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흥분과 설렘의 첫째 날

이른 아침, 여기저기서 반가운 웃음과 인사하는 소리들이 유니젠 사옥을 가득 채웠다. 오랜만에 만난 유니젠 한국과 미국의 직원들 그리고 유니베라, 알로콧, 에코넷 미국등 각지에서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에코네시안들이 한국의 에코네시안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였고, 발표자들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연구내용과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매우 설레는 모습이었다.

드디어 유니젠 한국 우성식(Sungsick Woo) 연구소장(CSO)의 진행으로 첫번째 세션이 시작되었다. 우선 마케팅과 세일즈에 대해 유니젠 미국의 영업담당 상무인 Doug Lynch 외 관계자들의 발표가 있었고, 오후에는 Wenwen Ma 박사의 진행으로 품질관리 및 생산 등을 주제로 깊이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저녁에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다. 열띤 토론으로 식욕이 왕성해진 우리 에코네시안들을위해 맛있는 바비큐 파티가 준비되었고, 식사 후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멋진 공연이 펼쳐졌다.

<공감>이라는 주제로 항상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유니젠의 모토에 맞게 이제껏 보지 못했던 환상적인 공연이 선보여 에코네시안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진중한 전통 타악 연주와 퍼포먼스의 결합, 25현으로 개량된 가야금으로 연주된 파헬벨의 캐논과 도라지타령,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 에코네시안들의 온몸을 들썩이며 아리랑을 합창하게 만들었던 베이스기타, 신디사이저 등 현대 악기와 한국 전통악기가 어우러진 퓨전 풍물공연!

매번 큰 박수와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는데,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강강수월래였다.

다 함께 손을 잡고 돌면서 강강수월래를 불렀는데, 김동식(Dong-Sik Kim) 사장과 Regan Miles 사장이 흥에 겨워 무대 중앙으로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다른 직원들도 너나할것없이 어울리면서 우리는 하나임을 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한 둘째 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 회사인 에스티로더사의 Chia Chen씨(Director, Biologic Research (Natural Products))와 Mary Matsui씨(Executive Director of External Research)가 특별 게스트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유니젠의 연구성과와 에코넷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화장품 분야에 대한 심도깊은 질문과 조언을 부탁해서 천연물 시장에서의 우리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어서 진행된 유니베라와 네이처텍 그리고 알로콧의 발표에도 귀 기울이는 모습이였다.

Individual meeting이 진행된 셋째 날

셋째 날은 같은 분야의 팀들이 모여 서밋기간 동안 발표된 연구성과와 마케팅 방법을 발전시키고 적용시킬 구체적인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연구에 진력하던 이들이 오랜만에 만나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유니젠 글로벌 서밋 2박 3일이라는 짧은 일정 속에는 세계 천연물 시장의 R&D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논의들과 에코넷 R&D 리더들의 열정이 수놓아졌다. 중요한 성공의 체험을 나누고, 열띤 토론을 통해 더 큰 발전의 토대를 가다듬었으며, 총론을 통해 비전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성도 강화했다. 저녁시간의 특별한 이벤트 들은 문화적인 이해를 돕고, 상호간의 친밀감을 북돋워 주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가을 미국에서 열릴 더 의미있고, 더 재미있는 11번째 유니젠 글로벌 서밋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



Sharing Passions at Unigen's Global Summit

By Mira Jang, Human Resources, Unigen Korea



The 10th Unigen Global Summit was held at the headquarters of Unigen Korea, located in Byeongcheon, from the 14th to 16th of May. The Unigen Global Summit is in its sixth year. And during that time, the summit was used as a forum where Unigen's research accomplishments, which allowed the company to grow into a leader of the biotech industry as well as revolutionary marketing strategies, were shared and this year's summit was no exception. Unigen Global Summit has surely shared the benefits of nature with all of humanity. Now, let us learn about the 10th Unigen Global Summit which took over a period of 2 days and 3 nights where

The First Day with High Expectations and Excitement

Early in the morning, the headquarters of Unigen Korea were full of the cheerful sounds of people laughing and greeting each other. The staff of Unigen Korea and America as well as ECONETians from Korea and from companies all over America such as Univera, Aloecorp and ECONET greeted each other warmly. The presenters seemed especially excited about presenting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which they had been working hard on.

Finally, the first session began with Chief Researcher (CSO) Sungsick Woo of Unigen Korea officiating. First, Doug Lynch, the Vice President of Sales for Unigen USA, and others gave a report about marketing and sales. In the afternoon, a conference was held and serious discussions on quality control and production took place led by Dr. Wenwen Ma.

A special event was held in the evening. A barbeque party full of delicious food was thrown for our ECONETians who were starved from the passionate discussions, and a spectacular and memorable performance was given following the meal.

The theme of the performance was 'Empathy' and it was a fantastic performance which captivated our ECONETians and illustrated Unigen's motto of always finding new frontiers. It was a fusion performance with an ensemble consisting of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and modern instruments including traditional Korean percussion, a modified 25 string gayageum or Korean lute, bass guitar and synthesizer. The ensemble performed such classics as Pachelbel's Canon and the Dorajitaryeong, a Korean folk song, and climaxed with all the ECONETians of Korea and America singing the traditional Korean song, Arirang, for the finale.

The performance drew great rounds of applause with the highlight of the performance, Ganggangsullae dance. Everyone held hands and turned around in a big circle singing the Ganggangsullae song. President Dongsik Kim and President Regan Miles were so taken with the spirit of the dance that they came out to the center of the stage and began dancing, and then the other employees also started



dancing together. It was a meaningful moment for us to feel that we were all one.

The Second Day with Special Guests

Chia Chen (Director, Biologic Research (Natural Products)) and Mary Matsui (Executive Director of External Research), of the Estee Lauder Companies, Inc., a world famous cosmetics company and a prospective business partner of Unigen, attended as special guests. They showed a deep interest in Unigen's research results and ECONET. They asked us questions about cosmetics and asked for advice, showing our company's position as a leader of the natural products industry. They also

showed interest in the reports given by Univera, NatureTech and Aloecorp.

The Third Day with Individual Meetings

On the third day, teams working in the same fields gathered together to discuss how to develop and apply the various research results and marketing strategies which were reported during the summit. It was a great time to have an earnest discussion with our colleagues whom we hadn't seen in such a long time.

Unigen's Global Summit is ECONET's most important event where ECONETians from all over come together in order to bring health and beauty to humanity using nature and science. Although the event was held over a brief period of 2 days and 3 nights, the meaningful reports and discussions helped ECONET take another step in bringing the benefits of nature to humankind for better health.

Finally, we said goodbye promising each other to meet again this fall at the 11th Global Summit to be held in America with even more meaningful and valuable research results and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슈퍼 우먼 에리카 클레멘

글 리사 마틴, 유니베라 미국

그녀는 유니베라 미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의 일과를 지원하는 데서 오는 매일 매일의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내이자 아홉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도 설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2 사분기의 직원상이 유니베라 미국의 CEO 스투어트 오킬트리의 비서인 에리카 클레멘에게로 돌아갔다. 이번의 임명은 유니베라 미국 내에서 에리카가 자신의 직무를 빠르게 향상시키면서 충실하게 일을 함으로써 얻어낸 당연한 결과이다. 그녀는 고객 관리부에서부터 시작해, 판매 및 마케팅 부서의 마케팅 코디네이터를 거쳐 현재 유니베라 미국의 CEO인 스투어트 오킬트리의 비서자리에까지 이르렀다. 에리카의 근면함과 헌신적인 태도가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이렇게 빨리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에리카는 강인하면서도 참을성이 있다. 그녀는 유니베라 미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의 일과를 지원하는 데서 오는 매일 매일의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내이자 아홉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도 설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에리카는 가족 최고의 치어리더이며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포기한 채 모든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와 참여 정신이 직장에서의 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녀는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번 분기의 수상자인 에리카만큼 이 상에 더 적합한 사람도 없다. 에리카는 우리 회사의 주요 가치인 난관을 극복하는 정신, 창의성, 그리고 평화와 우호는 물론 서번트 리더십이 강조하는 고결함, 경청, 그리고 존중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에코넷은 이보다 더 적합한 직원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진정으로 에리카를 축하하며 유니베라 미국 내에서의 그녀의 성장과 향상을 기대해 본다.

에리카, 축하해요!



Super Woman *Erica Clemmens*

By Lea Martin,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Univera USA

She has a non-stop lifestyle that not only includes being able to balance day-to-day challenges of supporting one of Univera USA's busiest people, but she also is a wife and a mother of nine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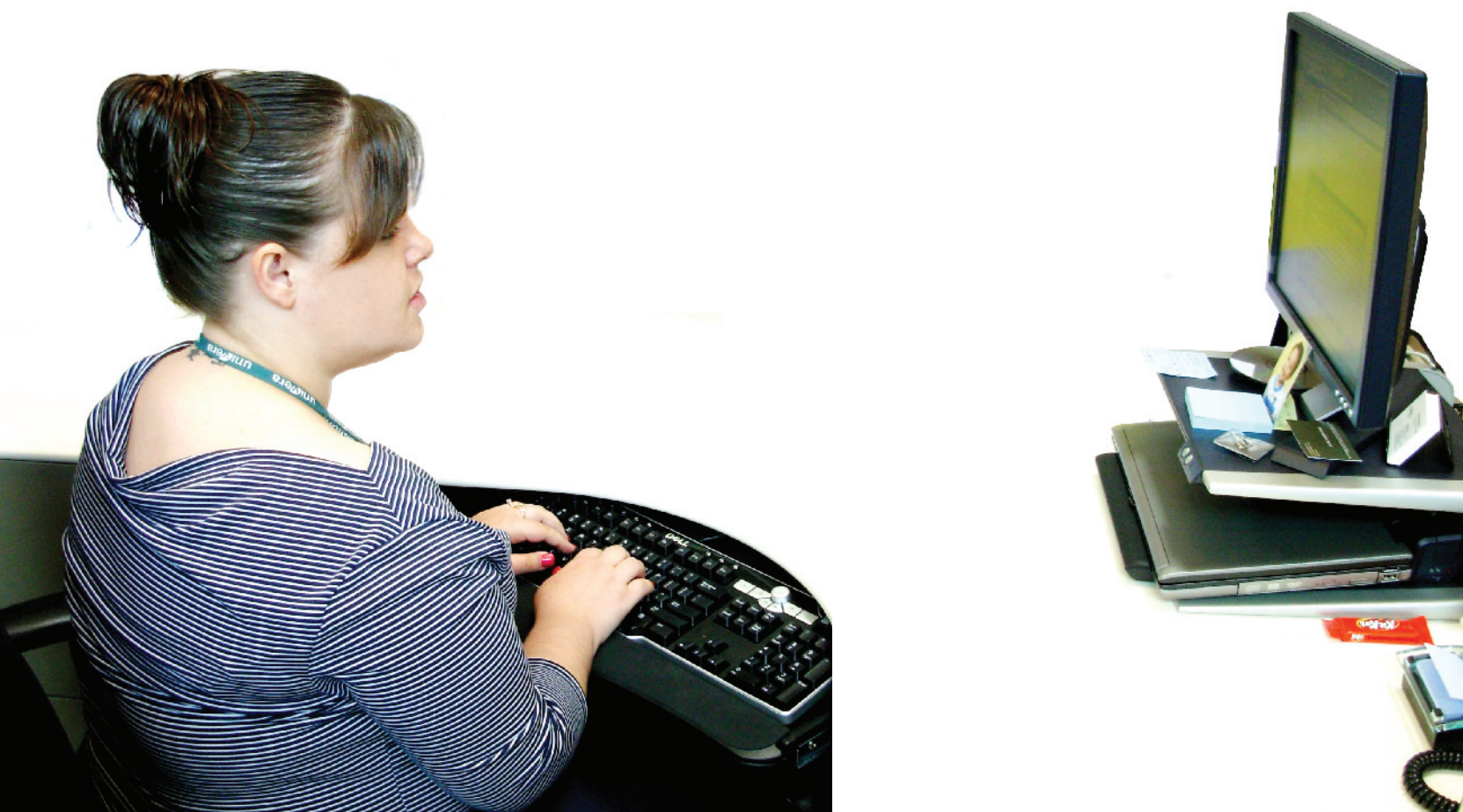
This quarter's Employee of the Quarter was given to the one and only, Ms. Erica Clemmens, assistant to Univera USA CEO, Stuart Ochiltree. Erica's nomination was dutifully earned as she has rapidly advanced her responsibilities within Univera USA. Her career began in Customer Care, moving to Sales and Marketing as the Marketing Coordinator, and now currently holds the position of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to Univera USA's CEO, Stuart Ochiltree. Her work ethic and dedication moved her up in these roles in a little under a year.

Erica has a strong yet patient personality. She has a non-stop lifestyle that not only includes being able to balance day-to-day challenges of supporting one of Univera USA's busiest people, but she also is a wife and a mother of nine children! Erica is her family's biggest cheerleader and she enjoys supporting and participating in all of her children's lives, rarely taking time for herself. This same attitude and involvement is expressed in the office where Erica is highly respected and regarded by her colleagues.

This Employee of the Quarter could not be more well-deserved. Erica Clemmens clearly demonstrates the Core Values, The Spirit to Face Challenges, Creativity, and Peace & Amity as well as Servant Leadership Values of Integrity, Listening, and Respect. ECONET could not have picked a more fitting candidate for this quarter. We sincerely congratulate her and look forward to her growth and advancement within Univera USA.

Congratulations Erica!

Erica Clemmens



세계 최고 천연물 과학자들 The World's Best Natural Products Scientists

연구에 많이 투자하는 우리 에코넷은 연구원들도 이렇게 각 사별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에코넷의 우수한 제품이 나오기까지 연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ECONET, which invests heavily in research, has its researchers distributed in each affiliate company in large numbers. Once again, let's applaud the researchers for their hard work in developing excellent products for ECONET



1. 부서명 : 연구개발실

2. 직원수 : 20명 (안계환 실장, 팀장 2명, 팀원 17명)

안계환 실장은 식품 및 화장품연구, 개발과 전 제품 품질보증에 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

3. 구성원들의 역할

▶ 연구개발팀 : 팀장 양승원 과장 외 7명

- 양승원 팀장 : 신제품 개발 계획 수립 및 모든 지행을 관리하고 책임
- 방기만 선임연구원 : 화장품 개발을 총괄하며 BAES(Bioavailability Enhancement System) 응용제제 연구개발 계획수립 및 진행관리
- 표한중 선임연구원 : 식품 개발 및 원료 대체 실험 등을 맡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대관 업무를 담당
- 박용운 선임연구원 : 크림류 및 세정류 신제품 개발
- 유승환 연구원 : 식품 액상 제형 개발과 일반 식품 품목 보고 서류 작성을 담당
- 임진희 연구원 : 식품 및 화장품 기기분석 실험(HPLC, UV, GC)과 발리데이션(Validation : 분석용어) 및 관리 업무
- 정명균 연구원 : 식품 연질, 하드캡셀 제형 개발 및 고형제 BAES 응용제제 연구개발 등을 담당



▶ 품질혁신팀 : 팀장 박용하 차장 외 12명

- 박용하 팀장 : 식품과化粧品の 품질관리 총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준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관리 등의 품질혁신팀의 총괄 책임
- 김진영 : SOP 표준화, 품질보증 化粧품 총괄담당
- 이재현 대리 : GMP 품질관리인 GMP 운영 및 총괄, 교육, 식품 품질 관리 총괄
- 유희석 대리 : 化粧品の 반제품 품질관리
- 이충현 대리 : SOP 개정 및 품질관리 체계 표준화
- 채진희 주임 : 포장자재 검토와 고객 클레임 관리
- 정찬대 사원 : 化粧品の 품질관리
- 김정은 사원 : 식품의 정제와 과립의 품질관리
- 황근천 사원 : 식품 액상 품질관리 담당
- 하승만 사원 : 식품의 지표성분과 化粧品の 기능성분 분석
- 조윤희 사원 : 化粧品の 원부자재 검사를 통해 제품의 품질관리
- 방지영 사원 : SOP 개정, 각종 GMP 문서 표준화를 통한 품질보증체계 구축
- 강석영 사원 : 식품 및 化粧品の 전반적인 미생물 실험 담당



4. 하고 싶은 말

▶ 연구개발팀 : 연구개발팀은 핵심기술인 BAES (Bioavailability Enhanced System)를 응용하여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제품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이 우리 제품에 녹아있는 한 연구개발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네이처텍의 핵심, 연구개발팀! 목표를 향해 꿈을 키우는 연구개발팀 여러분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파이팅 !!

▶ 품질혁신팀 : '최선을 다하자, 늘 땀 열심히, 일할 땀 더 열심히 하자' 라는 팀장의 구호 아래 표준작업철저 <SOP>! 모든 업무의 근본이며(6-시그마, ERP, 원가절간, GMP등), GMP를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관리 향상, 국민 건강 향상,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 생산에 기여하겠다. 품질 혁신팀, 아자!!

1. Department : Research Development

2. Number of employees : 20 (Director Ghewhan Ahn, 2 team leaders and 17 staff members)
Director Ghewhan Ahn is responsible for the overal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ood and cosmetics, and quality assurance for the company's entire product line.

3. What they do

- ▶ Research Development Team : Team Manager Seungwon Yang and 7 members
- Team Manager Seungwon Yang is in charge of establishing plans for new product development and



managing their progress

- Senior Researcher Gimang Bang oversees cosmetics development, establishes plan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aterials using the bioavailability enhancement system (BAES), and manages their progress
- Senior Researcher Hanjong Pyo is in charge of food development and raw material substitution experiments, and handles relations with the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KFDA)
- Senior Researcher Yongwoon Park develops new creams and cleansing products
- Seunghwan Yoo handles the development of liquid-type foods and the preparation of written reports on general food items
- Jinhee Lim is in charge of food and cosmetics instrumental analysis (HPLC, UV, and GC), validation, and management
- Myunggyun Jung handle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oft and hard capsules of food, and solid-type products using BAES

▶ **Quality Innovation Team : Team Manager Yongha Park and 12 members**

- Team Manager Yongha Park oversees the entire operation of the Quality Innovation Team, including the overall quality management of food and cosmetic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tandardization), and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 Section Manager Jinyoung Kim is in charge of SOP standardization and quality assurance in the cosmetics sector
- Assistant Section Manager Jaehyon Lee is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and oversight of GMP quality management, training, and overall quality management for food products
- Assistant Section Manager Hongsuk You manages the quality of semi-finished cosmetics products
- Assistant Section Manager Chungheon Lee handles SOP revisions and the standardization of quality management systems
- Chief Jinhee Chae reviews packaging materials and handles customer claims
- Chandae Jung manages the quality of cosmetic products
- Jeongeun Kim handles quality management for food refinement and granules
- Keunchon Hwang manages the quality of liquid foods
- Seungman Ha is in charge of analyzing the active ingredients of foods and the biologically active ingredients of cosmetics
- Yoonhea Cho is responsible for product quality management through the inspection of raw and ancillary materials for cosmetics
- Jiyoung Bang establishes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through standardization of SOP finance and various GMP-related documents
- Sukyoung Kang handles overall microbial experiments for foods and cosmetics



4. Greetings

1) **Research Development Team** : The Research Development Team carries out unique and differentiated product development by applying BAES as a core technology. As long as our enthusiasm for health and beauty is imbued in our products, the flame of dedication to developing better products in each of us will never go out. Naturetech's core, the Research Development Team! We are proud of ourselves because we dream big for our goal. Let's keep up the good work!

2) **Quality Innovation Team** : Under the team leader's slogan, "Let's do our best; play hard and work harder," we are committed to the meticulous standardization of the SOP. Our work is the basis for all operations (6-sigma, ERP, cost reduction, GMP, etc.) and we will strive to improve the quality management of products, enhance public health, and produce food that can be trusted by consumers. Let's go, Quality Innovation Team!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1. 부서명 : 생명과학연구소

2. 직원수 : 9명 (연구소장 오선택 상무, 팀장 2명, 팀원 6명)

3. 구성원들의 역할

식품연구팀과 화장품연구팀, 2개의 팀으로 구성된 생명과학 연구소는 연구소장인 오선택 상무와 식품연구팀 신은주 팀장, 화장품연구팀 장혜인 팀장을 중심으로 6명의 연구원이 유니베라의 우수한 제품을 기획 개발하고 있다. 연구소 직원들은 유니베라 제품개발을 통해 '천연물의 과학화'에 가장 선두에서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이 투철하다.

- 오선택 상무는 유니베라 생명과학연구소 소장으로서 유니베라의 식품, 화장품의 제품 기획 및 개발을 총지휘한다.
- 식품연구팀은 신은주 책임 연구원, 심규석 전임 연구원, 김용빈 연구원, 김승현연구원, 유신애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기획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화장품연구팀은 장혜인 책임 연구원, 김진완 전임 연구원, 최윤선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품의 기획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하고 싶은 말

우리는 천연물이라는 자연의 산물을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류의 완전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실현시킴으로써 인류가 자연의 이로움을 누리게 하고자 합니다.



1. Department : Institute of Life Sciences

2. Number of employees : 9 (Managing Director Suntack Oh, 2 team leaders and 6 staff members)

3. What they do

Consisting of two teams (Food Research Team, Cosmetics Research Team), the Institute of Life Sciences is where six researchers are planning and developing Univera's outstanding products under the leadership and guidance of Managing Director Suntack Oh, Senior Researchers Eunju Shin (Food Research Team), and Hyein Jang (Cosmetics Research Team). Researchers at the institute take great pride in the fact that their product development activities at Univera enable the company to lead the industry, remaining at the forefront of the "scientific application of natural substances."



- As Director of Univera's Institute of Life Sciences, Suntack Oh oversees product planning and development for foods and cosmetic products.
- The Food Research Team consists of Senior Researcher Eunju Shin, Junior Researcher Kyusuk Shim, and Researchers Yongbin Kim, Seunghyun Kim, and Shinae Yu. They plan and develop various health supplement products.
- The Cosmetics Research Team consists of Senior Researcher Hyein Jang, Junior Researcher Jinwan Kim, and Researcher Yunseon Choi. They are in charge of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of cosmetics.

4. Greetings

Striving to realize perfect health and beauty for humankind by using science to harness the gifts of nature, we are dedicated to helping people fully enjoy what nature can offer.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1. 부서명 : 천연물연구팀

2. 직원수 : 11명, (팀장 - 김동선 연구위원, 상무보)

3. 구성원들의 역할

- 김동선 연구위원은 천연물연구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분석부문의 구성원은 이강우 책임연구원과 고진숙, 황지혜 연구원이며 개발 소재의 기준규격 설정, 시험법 개발, 유통기한 설정 및 분석 기술 지원 및 기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파이토로지스스 부문의 구성원은 남정범, 오미선, 서지은 연구원이며, 천연물의 수집, 추출물 및 화합물 라이브러리 구축, 이들의 분광학적 데이터와 생리활성 데이터의 구축, 유효성분 및 개발소재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HTP 기술의 축적 및 upgrade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반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 공정개발 부문의 구성원은 김종한과 이보수 연구원이며, 개발된 소재의 제품화를 위하여 실험실 수준에서 개발된 표준추출물로부터 품질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대량생산공정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 소재개발 부문의 구성원은 김미란과 손은정 연구원으로 PhytoLogix D/B 및 문헌정보를 활용하여 개발후보소재를 도출하고, 활성추적에 따른 유효성분을 분리, 동정하고, 이로부터 표준화된 추출물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효능의 최적화 및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물의 정확한 동정 및 오염원 배제를 위한 내부품질관리법을 개발하고 있다.



4. 하고 싶은 말

"행복의 비결은 즐거움을 얻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데 있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땀 흘리며 함께 일하는 곳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Department : Natural Products Chemistry Team

2. Number of employees : 11 (Team Leader - Managing Director Dongseon Kim)

3. What they do

- Head Researcher Dongseon Kim is in charge of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Natural Products Chemistry Team.
- The Department of Analytical Chemistry consists of Senior Researcher Kangwoo Lee, and researchers Jinsook Ko and Jihye Hwang. They are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criteria for materials in development, developing test methods, setting expiration dates, supporting analysis techniques, and maintaining related instruments.
- The Department of Phytologics consists of Jeongbum Nam, Misun Oh and Jieun Seo. They are responsible

for developing basic technologies designed to accelerate R&D endeavors and enhance efficiency by collecting natural substances, accumulating the library of extracts and chemicals, building a pool of spectral data and bioactive data, and accumulating and updating HTP technologies designed to efficiently identify valid properties and development materials.

- Jonghan Kim and Bosu Han in the Department of Process Development are in charge of developing optimized mass production processes in consideration of the quality and economic value of standard extracts developed at the lab level, to enable these developed materials to be put to commercial use.
- In the Department of Material Development, Miran Kim and Eunjeong Son identify candidate materials by utilizing the PhytoLogix database and literatures, separate and identify valid properties using activity tracing, and develop standardized extracts from those properties. In addition, they develop internal quality management techniques to accurately identify source materials used in production and to eliminate pollutants so that optimized efficiency and safety can be secured.

4. Greetings

“They say the secret to success lies not in endeavoring to find happiness but in finding happiness in the endeavor itself. We hope everyone will be happy in this workplace where we work hard together.”

1. 부서명 : 생리활성검정팀

2. 직원수 : 7명 (팀장 - 도선길 수석연구원)

3. 구성원들의 역할

- 도선길 수석연구원은 팀장으로서 구성원을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성수경 선임연구원은 지노액티브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cell-based assay를 맡고 있다.
- 김태우, 김충섭, 김현진, 최병일 연구원은 실험동물을 이용한 효능 및 안전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 김희양 연구원은 임상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4. 하고 싶은 말

- 김현진 - 2007년 개발하는 소재 대박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 김희양 - 생리활성검정팀이라서 행복해요~ 열심히 일한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 김태우 - 외유내강의 팀장님, 재미있는 팀원들과 함께여서 기뻐요. 생리활성팀 아자아자!
- 성수경 - “Chance favors only the prepared mind. Louis Pasteur” 대박이여 오시옵소서!
- 김충섭 - 2007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팀이 되게하세요. 자유하는 밝은, 역동적인, 혁신하는 팀이 되게 하세요!



1. Department : BioAssay & Discovery Team

2. Number of employees : 7 (Team Leader - Principal Researcher Seongil Do)

3. What they do

- Principal Researcher Seongil Do directs the rest of the team as the team’s leader.
- Senior Researcher Sookyung Sung is mainly engaged in the genoactive business and is in charge of cell-based assay.
- Taewoo Kim, Chungseop Kim, Hyunjin Kim, and Byongil Choi are responsible for evaluating efficacy and safety through animal testing.
- Heeyang Kim is in charge of clinical trials.

4. Greetings

- Hyunjin Kim - I hope the materials we are developing in 2007 will hit the jack pot.
- Heeyang Kim - I am happy to be part of the BioAssay & Discovery Team. I hope our hard work will meet with equal rewards.
- Taewoo Kim - It is great to be working with our team leader, who is an iron hand in a velvet glove, and my lively coworkers. Go BioAssay & Discovery Team!
- Sookyung Sung - “Chance favors only the prepared mind. - Louis Pasteur.” Jack pot, please come to us!
- Chungseop Kim - Let 2007 be filled with Lord Christ’s grace. Let the team be bright, dynamic and innovative!

1. 부서명 : 연구기획관리팀

2. 직원수 : 1명

3. 구성원들의 역할

이영철 책임연구원은 팀장으로서 연구개발관련 인허가 관리와 프로젝트 관리 등을 하고 있다.



4. 하고 싶은 말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주기 위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 유니젠 파이팅~! 연구소 파이팅~!

1. Department : Research & Planning Management Team

2. Number of employees : 1

3. What they do

Senior Researcher Youngchul Lee is responsible for managing approvals and permissions for R&D projects and for project management as the team's leader.

4. Greetings

Taking powerful strides to bring the benefits of nature to humankind! Go Unigen! Go Unigen Lab!



1. 부서명 : 품질관리팀

2. 직원수 : 4명 (팀장 - 송만섭 과장)

3. 구성원들의 역할

- 송만섭 과장은 품질관리팀의 일원으로 QA 업무를 비롯한 품질 관리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이끌어가는 팀장을 맡고 있다.
- 황보현정 대리는 품질관리시험 항목 중 미생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박은혜 주임은 원료 및 제품에 대한 함량 분석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팀의 막내인 김민정 사원은 품질관리 시험 중 입도와 수분실험을 담당하고 있으며 품질관리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4. 하고 싶은 말

품질향상에 힘써 세계 최고를 향해 뛰어가는 유니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Name of Dept. : Quality Management Team 

2. Number of employees : 4 (Team Leader - Manager Manseob Song)

3. What they do

- As a member and leader of the Quality Management Team, Manager Manseob Song oversees the general operation of the team including quality assurance.
- Among quality management test items, Assistant Manager Hyunjung Hwangbo carries out experiment on microbes, while senior staff member Eunhye Park is responsible for analyzing the content of raw materials and products. Finally, staff member Minjung Kim is in charge of granularity and moisture testing and support for the entire team's operation.

4. Greetings

We will strive for quality enhancement to ensure that Unigen will leap forward to the forefront of the global market.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1. 부서명 : 개발 및 검증부

2. 직원수 : 6명

3. 구성원들의 역할

우리 개발 및 검증 부의 사명은 파이토 로직스 라이브러리로부터 생물체에 작용하는 구성요소들의 활동과 안전성을 식별하고 특징을 밝혀내어 인간의 면역 체계, 염증, 에너지와 신진대사 균형 등을 조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과학자 - 분자 생물학 및 검증 부분에 사샤 네스테로브, 줄리 트셴-크랭크, 전임상 부분의 메스핀 이맘
- 연구원 - 분자 생물학의 카르멘 허텔, 전임상 부분의 제니퍼 호만
- 인턴 - 케이틀린 블럼

4. 하고 싶은 말

에코네시안 여러분,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제품 적용의 폭을 넓혀 줄 첨단 과학의 비밀을 밝혀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효과와 안전성을 분자와 세포 단계로까지 넓혀 기존 고객은 물론 잠재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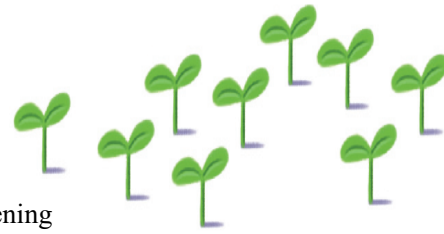


1. Department : Discovery and Screening

2. Number of employees : 6

3. What they do


The scientific rationale of our discovery and screening group is to identify and characterize the activity and safety profile of bioactive components from our PhytoLogix[®] library that can be applied in modulating the human immune system, inflammation, energy and metabolic balances.



- Scientists - Sasha Nesterov and Julie Tseng-Crank in Molecular Biology and Screening and Mesfin Yimam in PreClinical
- Research Associates - Carmen Hertel in Molecular Biology and Jennifer Homan in PreClinical
- Intern - Katelynn Blume

4. Greetings

ECONETians, we are here to unveil the intricate nature of cutting edge science that widens the horizon of current and future product applications, to support existing and potential customers by increasing our understanding of its effects and safety into a molecular and cellular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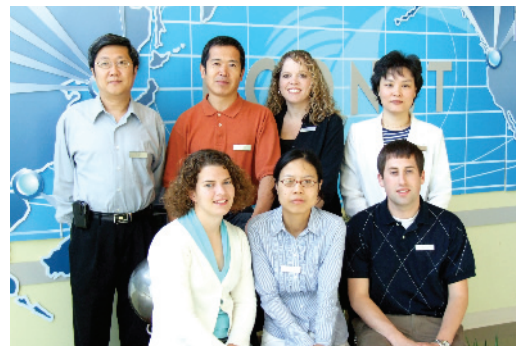
1. 부서명 : 천연 제품부 

2. 직원수 : 8명

3. 구성원들의 역할

천연 제품 부는 생리 활성 식물 혼합물을 식별해내어 새로운 성분으로 개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통적 약용 식물을 수집, 몇 세대를 걸친 식물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활성 혼합물을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 치 지아 박사 (CSO) • 지푸 자오 박사 • 메이 홍 박사 • 핑 자오 박사
- 바비 하나 (연구원) • 네이던 주다 (연구원) • 케터린 머셋 (인턴)
- 리네 버틀러 (임원행정보조)



4. 하고 싶은 말

저희는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모토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천연제품 부는 최고의 천연 재료를 발견하여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고 고객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 Department : Natural Products Lab 

2. Number of employees : 8


3. What they do

In the natural products laboratory, our goal is to identify biologically active plant compounds and develop them into novel new ingredients. This process begins with the collection of traditional medicinal plants, generation of a plant library and the development of active compounds into ingredients.

- Qi Jia, Ph.D., CSO • Jifu Zhao, Ph.D., Scientist
- Mei Hong, Scientist • Ping Jiao, Ph.D., Scientist
- Bobby Hanna, Research Associate
- Nathan Judah, Research Associate
- Catherine Maurseth, Intern
- Linnea Butler, Administrative Assistant

4. Greetings

We are at the frontier to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The Natural Products lab is working hard to discover the best ingredients in nature, which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your life and satisfy your true needs.

1. 부서명 : 품질 관리 / 품질 보증 부 

2. 직원수 : 5명

3. 구성원들의 역할

- 원료, 가공 제품, 안전성 샘플, 체내 체외 샘플, 그리고 임상시험 샘플에 대한 품질관리 및 분석
- 분석적 방법의 개발과 증명 • 실험실 조사
- GMP와 다른 규율에 대한 준수
- 품질 정책, SOPs 그리고 설명서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 미가공 재료, 제품, 품질 관리 테스트 결과 와 설명서에 대한 인가와 거부
- 배치 기록 검토; 공급업자 자격 조사와 감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웬웬 마 박사 (품질관리 상무) • 정미정 박사 (품질관리 과학자) • 마이클 잔 (품질관리 연구원)
- 드셴 왕 (품질 분석가) • 타오 트린 (품질관리 연구원)

4. 하고 싶은 말

저희는 제품의 품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 Department : QC/QA, Unigen USA (note: the lab is QC but the Department is QC/QA) 

2. Number of employees : 5

3. What they do

Perform QC analyses for raw material, final product, stability samples, in vivo and in vitro samples, and clinical samples; Develop and validate analytical methods; Conduct lab investigations; Ensure compliance with GMP and regulations; Establish and enforce quality policies, SOPs, Specifications; Release (or reject) raw materials and products; QC testing results and specifications; Perform batch records review; and Conduct vendor qualification and audits.

- Wenwen Ma, Ph.D (VP of Quality Control)
- Mijeong Jeong, Ph.D (QC Scientist)
- Michael Zahn, BS (QC Associate) • Desheng Wang, MS (QC Analyst) • Thao Trinh, BS (QC Associate)

4. Greetings

We are committed to the quality of our products. Together, we can bring the best and the finest quality of products to our custom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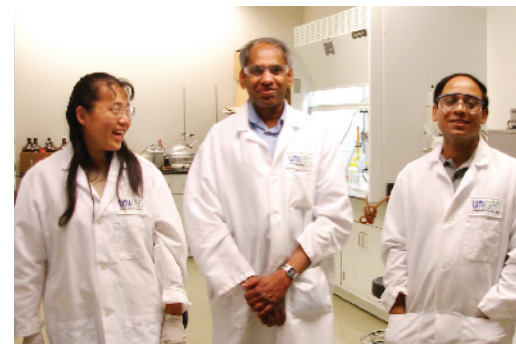
1. 부서명 : 천연 합성물부

2. 직원수 : 3명

3. 구성원들의 역할

약품이나 화장품 개발을 위해 생리 활성 성분들을 유기적으로 합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리 활성 성분의 연구를 종합하여 미래의 제품 개발에 더 적합한 성분을 찾기 위해 그 활성성을 체크합니다. 이는 또한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 아비싱히 파드마프리아 (오퍼레이션 & 천연 합성물 상무)
- 샌딕 낸디 (상임 과학자) • 류 지연 박사 (연구원)



4. 하고 싶은 말

저희는 3개국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유기 합성 분야의 Ph.D. 과학자만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샌딕은 유기합성 분야에 18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학계 연구실에서 일해왔습니다. 지연은 워싱턴 대학에서 막 박사과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파드마는 콜로라도 브룸필드에서 레이시로 이사 올 때 함께 옮겨온 직원중의 하나로 이미 에코넷에서 일한지 11년째가 됩니다. 저희 셋 모두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 내느라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 Department : Organic Synthesis

2. Number of employees : 3

3. What they do

Organic synthesis of biologically active compounds for future drug or cosmetic development. Synthesize analogs of biologically active compounds then check the activity to find better candidates for further development. This also provides a means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osition.

- Abeyasinghe Padmapriya (VP of Operations and Organic Synthesis)
- Sandip Nandy (Senior Scientist)
- Jiyun Liu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4. Greetings

We are a three-member team with Ph.D.s in organic synthesis and many combined years of experience from three different countries. All members of the team are married and have families with kids. Sandip has 18 years experience in organic synthesis and has worked in many academic laboratories. Jiyun just received her Ph.D.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adma has been with the company for 11 years. He is one of the employees who moved from Broomfield, CO to the Lacey office.

We are very busy making compounds from scratch.



알로콧 미국 / Aloecorp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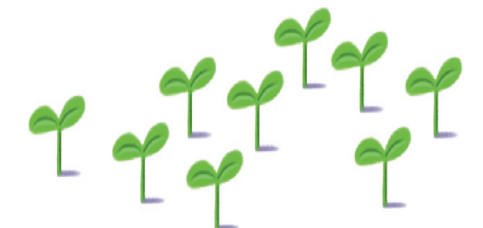
1. 부서명 : 품질 연구개발실

2. 직원수 : 18명 (연구개발실 6명, QC & QA 11명)

3. 구성원들의 역할

최고, 최상의 알로에 원료를 만드는 법은 우리 부서안에 있습니다. 고객들의 요구에 안정맞춤인 알로에 원료를 제공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합니다. 올해에는 특히나 새로운 원료 제품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요. 또한 알로에 원료생산 회사중에서는 처음으로 cGMP인증을 받기위하여 준비중이기도 합니다.

하는 일은 품질 연구개발실은 알로콧 제품 생산 단계에서 품질보증, 품질관리 및 상품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



고, 품질보증 부서에선 우리 제품의 순도 및 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절차, 디자인, 심사기준, 유효성, 적절성 및 제품 규격을 인가합니다.

품질 관리부는 제품 원재료와 가공원료, 그리고 완성품의 품질 관리절차, 문서 기록, 적절성 여부 및 규격 검증을 담당하고, R&D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공정혁신 개발, 제품원료 심사 및 상품 개발을 담당합니다. 품질연구개발실 임직원들은 ECONET과 고객들에게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제품의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알로콕이 알로에 베라 산업의 글로벌 리더임을 보여줍니다.

▶ 연구개발실

- 켄 존스 (연구개발 상무보)
- 로버트 에스피노자 (품질보증 팀장)
- 라미로 가에고스 (품질관리 팀장)
- 마리솔 헤르난데즈 (QC Analyst)
- 말렌 아빌라 (QC Analyst)
- 짐 페레즈 (QC Analyst)



▶ QC & QA

- 낸시 (품질관리 팀장)
- 카르멘 · 테오 · 환 · 테레 · 엘사 · 마이라 · 알프레도
- 이사벨 · 마르셀라 · 발렌티나

4. 하고 싶은 말

우리는 알로콕 멕시코의 임직원들의 품질 관리부에 대한 기여와 공헌을 잊지 않는다. 이들은 우리의 업무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알로콕 멕시코 직원들은 생산물 가공처리 유효성 심사를 위해 생산물 수확에 쉽 없는 열정을 쏟아 붓는다. 품질연구개발실의 임직원들은 인류에게 최고의 자연제품을 선사하고자 하는 맹세아래 에코넷을 위해 자랑스럽게 근무하고 있다.



1. Department : Scientific Affairs Department

2. Number of employees : 18 (R&D - 6, QC & QA - 11)

3. What they do

Our division has the know-how to make the highest quality aloe ingredient. We are researching and experimenting endlessly in order to provide our customers with aloe ingredients which fit their needs and requirements. This year, we are working especially hard to create new aloe based ingredients. We are also preparing to become the first aloe ingredient company to receive the cGMP certification.

The Scientific Affairs Department supports Aloecorp manufacturing in Quality Assurance, Quality control and pro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he Quality Assurance has the responsibility for approval of procedures, designs, protocols, validations, qualification and specifications impacting the quality and purity of our products.



The Quality Control is responsible for procedures, records, qualifications and specifications for testing raw materials, processed materials and finished products.

R&D projects include development of process innovations, product composition testing and product development. In this role the staff of the Scientific Affairs Department provides analytical and technical support to the ECONET and customers, representing Aloecorp as a world leader in Aloe vera science and service.

▶ R &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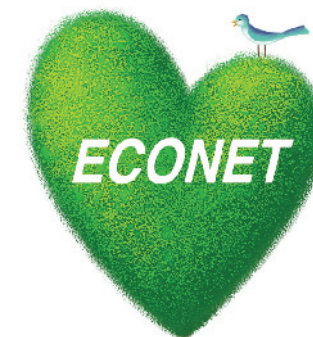
- Ken Jones (Chief Science Officer) · Robert Espinoza (QA Manager)
- Ramiro Gallegos (QC Manager) · Marisol Hernandez (QC Analyst)
- Mareln Avila (QC Analyst) · Jim Perez (QC Analyst)

▶ QC & QA

- Carmen · Teo · Nancy · Juan · Tere · Elsa · Mayra · Alfredo · Isabel · Marcelay · Valentina

4. Greetings

But we can not overlook the contribution of the Quality Control staff of Aloecorp de Mexico. These staff members are the heart of our quality operation. The dedicated staffs of Aloecorp de Mexico are involved in the harvest and production of our products daily for in-process validation of our manufacturing. The staff of the Scientific Affairs department are privileged to serve the ECONET in its pledge to br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에코넷으로의 초대



주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베라, 자연을 꿈꾸는 수요음악회

글 박정아 기자, 고객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아름다운 문화를 나누기 위해

자연의 꿈을 꾸는 수요음악회는 유니베라가 위치한 성동구내 지역주민에게 유니베라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메세나 활동 차원에서 2005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문화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지역주민과 문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만큼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수동에 위치한 사옥 '에코넷 센터'에서 클래식,

퓨전 재즈, 아카펠라 등 '자연의 닮은 음악'이라는 컨셉으로 매월 이색적인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성동구민을 비롯한 지역주민, 이웃지역까지 포함한 소외계층(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을 초청하고 임직원과 가족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초창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



Invitation to ECONET

지 않았을 때에는 유니베라 UP(Univera Planner)를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이 많이 참여하게 되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더 걸맞은 행사가 되고 있다.

그동안 수요음악회를 거쳐간 뮤지션은 유진박&진보라, 동물원, 난타, 나무자전거, 양모양모 등 뮤지컬, 재즈, 모던락, 클래식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들이라 회가 거듭될수록 수요음악회 인기가 높아져 성동구민 뿐만 아니라 인근 구민도 옅저버로 참석하고 있다.



수요음악회는 매 공연마다 테마를 두고 있는데, '봄을 여는 이야기 - 나무자전거', '세대공감, 신나는 리듬 - 난타' 등 자연과 함께 자연을 꿈꾸는 유니베라의 모토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신선한 저녁 공기를 느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4월부터 10월까지의 공연을 야외에서 진행하도록 기획, 진행 중이다.

유니베라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공연문화의 감동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동구청과 연계된 공연도 기획 중이다. 공연을 매개로 하여 지역 주민과 하나가 되고, 나아가 자연과 하나되는 수요음악회가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유니베라의 상징적인 이벤트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특별한 감동의 이벤트

수요음악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특별 이벤트! 개인마다 지닌 감동과 사랑의 사연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공연 중에 소개하는 '감동사연 이벤트'가 그것인데, 이음의 케이크와 디너 쿠폰을 선물하고 공연을 진행하는 아티스트가 직접 사연을 소개해 더욱 감동적인 시간이 된다.

지난 2006년에 유진박&진보라 공연을 함께 한 김철현 어린이(남, 6세)가 공연을 보면서 아티스트가 되고픈 꿈을 키우게 되었고 그 후 열심히 연습하면서 콩쿠르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연을 어머니가 보내와 2007년 6월 공연 이벤트에 소개하였다. 유니베라 수요음악회를 통해 한 어린이의 꿈이 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행사 담당자는 작은 일이지만, 멋진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Invitation to ECONET



Local Residents Enjoy Univera's Wednesday Concert: Dreaming of Nature

By Jeongah Park, CS Team Manager, Univera Korea

To Share a Beautiful Culture with All

"Wednesday Concert: Dreaming of Nature" began in September 2005 as part of Univera's commitment to returning its profit to the residents of Seongdong-gu, where Univera is located, in the spirit of Gaius Maecenas. As the concerts are organized to provide the culturally marginalized people with an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others, the performances are given for free at ECONET Center, Univera's office building in Seongsu-dong. This ongoing event offers unique and exciting performances each month including classic, fusion jazz

and a-cappella under the theme of "music that takes after nature."

In addition to the local residents of Seongdong-gu, the inhabitants of social welfare centers and orphanages in the district and its vicinity are invited to the concerts. Univera employees, executives, and their family members also took part in these events.

At first, when the concert series was little known to the



community, it was mainly Univera Planners who were invited to the musical events. Over time, however, an increasing number of local residents and the marginalized have been coming to the concerts, making the event truer to its original meaning and intended purpose.

The musicians who have performed at the Wednesday Concert include Eugene Park and Bora Jin, Dongmulwon, Nanta members, Tree Bicycle, and Jammo Jammo. With such star performers of the musical, jazz, modern rock, and classic music, the Wednesday Concert series is becoming so popular that people from nearby communities as well as Seongdong-gu residents attend the concerts as observers.

Each Wednesday Concert features a different theme—"Stories to Awaken Spring by Tree Bicycle" and "Exciting Rhythms and Intergenerational Harmony by Nanta," for instance—to realize Univera's philosophy of dreaming of nature alongside nature. This is why outdoor performances are being offered and planned from April to October, to ensure that the audience feels the cool evening air and enjoys the beauty of nature to the fullest.

Special Heartfelt Events

The highlight of each Wednesday Concert is clearly its special event, which introduces touching stories of inspiration and love which were sent in online prior to the concert. Those whose stories are selected are presented with a cake and dinner coupon by Eum, and their stories



are read aloud by the concert's hosting artist, making the event all the more memorable. Cheolhyeon Kim (boy, age 6) has been dreaming of becoming a musical artist after attending the concert featuring Eugene Park and Bora Jin in 2006, and has been practicing earnestly and participating in competitions. Having been sent in by his mother, the six-year-old boy's story was introduced during the June 2007 Wednesday Concert. The event organizers were greatly inspired to learn that a child's dream was growing thanks to Univera's Wednesday Concert and that wonderful things could come out of what might seem small and insignificant.

Univera is planning shows in conjunction with the Seongdong-gu District Office to help even more people experience the thrill and inspiration of performance culture.

It is our hope that the Wednesday Concert, which enables communion with local residents and with nature itself through the medium of performances, will be cherished by its audience for years to come and become an event that truly represents Univera.



Invitation to ECONET



담배에의 도전

언제나 방심은 금물! 담배란 녀석은
허약해진 마음의 틈새로 쉽게 스며드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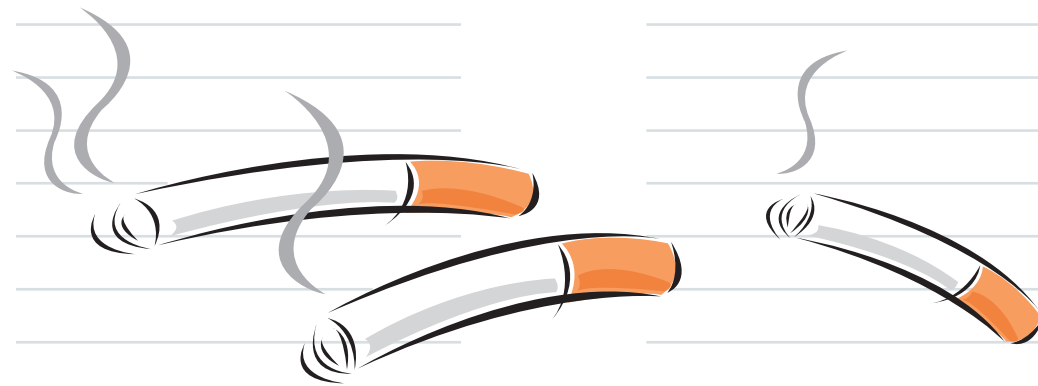


글 강승원 팀장,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팀, 유니젠 한국

담배는 기원전 5000년 전에 페루 안데스 산맥지방에서 재배됐다. 고대 마야 제국 사람들은 담배를 신이 선물한 신비한 약초로 여겨 종교의식이나 해독제로 사용했다고 한다. 담배가 유럽으로 전파된 것은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인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면서부터이다. 원주민인 인디언들로부터 잎담배 종자를 선물로 받아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담배가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신대륙 발견만큼이나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 1950년대 초 영국에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되고, 1964년 미국보건총감(Surgeon General's Report)에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담배의 해악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2007년 1월, 유니젠은 담배에 아류를 선언했다.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우리 에코넷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자는 뜻에서, 유니젠 직원들은 김동식 사장이 제안한 금연 프로그램에 전원 동의를 표시하고, 인류역사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들다는 금연의 산을 오르겠다고 맹세한 것이다.



유니젠은 금연 프로그램을 위해 작은 인센티브를 내 걸었다. 최초 금연 서약 시에 30만원을, 2년차 3년차에는 각 10만원을, 만 3년 동안 금연하게 되면 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반면,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 동안 받은 장려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금연을 서약한 지 어느덧 7개월! 유니젠 직원들은 사탄 보다 더 질기다는 담배의 유혹을 잘 견뎌내고 있는 것일까? 아직까진 중도에 포기하는 직원들은 없는 것 같다. 간혹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위약금을 지불하고 확 피어버릴까?' 하는 직원도 있다. 그럴 땐 곁에 있던 동료들이 여태까지 노력한 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며 회사에서 직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금연 보조제와 금연침을 사용하라고 서로 권해준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금연이 더욱 돈독한 동료애를 느끼게 하는 촉매제가 된 것이다.

연말에 실시하기로 한 니코틴 측정까지는 이제 5개월. 지금 추세대로라면 전원이 금연에 성공해 멋진 파티를 벌이는 게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언제나 방심은 금물! 담배란 녀석은 허약해진 마음의 틈새로 쉽게 스며드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니가 제일 잘났는데, 누구 눈치를 봐서 담배를 안피느냐'며 언제 유혹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도전자들이 금연 성공을 통해 자기 삶의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큰 기쁨을 만끽하고, 두둑한 포상금으로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이뤄지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상상해 본다.



Quit Smoking Challenge

This sneaky devil called tobacco easily infiltrates the chinks in a weakened heart.

By Seungwon Kang, Manager, HR&General Affairs Team, Unige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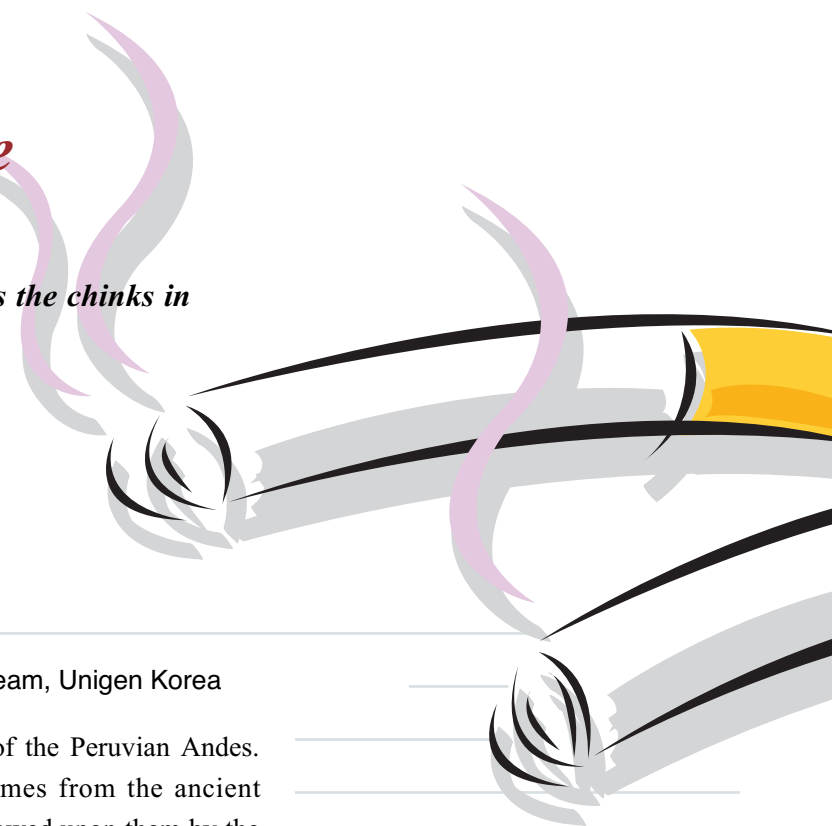
Tobacco was cultivated in 5,000 BC in the highlands of the Peruvian Andes. The first written record about the use of tobacco comes from the ancient Mayans: they revered tobacco as a mysterious herb bestowed upon them by the gods, and used them in religious rituals or as an antidote for poison.

The transmission of tobacco to the European continent began with Christopher Columbus's discovery of the West Indies in 1492. Thereafter, he made his way onto the American continent on numerous occasions, received gifts of tobacco seeds from the native tribes, and returned with them to his homeland across the ocean, thus having enormous influences on mankind.

Meanwhile, in the early 1950s, studies from England showed for the very first time that smoking was the cause of lung cancer. In 1964, the U.S. Surgeon General's Report officially announced the carcinogenic effects of smoking and it aroused great attention in society.

In January 2007, Unigen bid adieu to tobacco. "Bringing the benefits of nature to humankind!" To put ECONET's corporate philosophy to practice, the staff of Unigen agreed unanimously to President Dongsik Kim's proposal of a quit smoking program during the January monthly assembly. In short, they vowed to conquer the towering forces of tobacco, a summit reputed to be one of the most difficult to attain in the history of humankind.

Unigen has announced a quit smoking program that comes with a small incentive: an employee receives \$300 when he or she initially signs to q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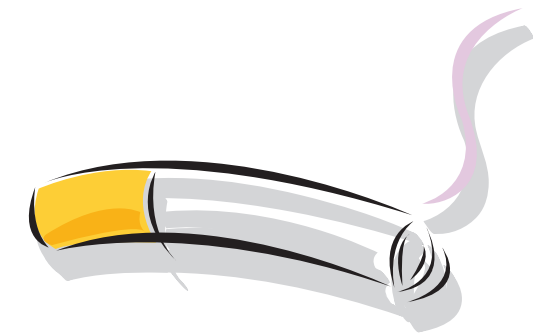
smoking, with an additional reward of \$100 for each subsequent smoke-free year. At the end of the third year, the hefty sum of \$600 is awarded for prevailing in the face of a temptation sweeter than honey. However, anyone who gives up along the way must pay a penalty amounting to 1.5 times the incentive awarded.

It has been seven long months since the declaration to make Unigen smoke-free. How are the employees at Unigen faring against the temptations of tobacco—a temptation said to be harder to resist than the whispers of Satan? So far, none seem to have given up. Still, there are those rare few who feel so hungry for a cigarette that they even consider paying the steep penalty if it will allow them to return to their former habit.

At such times, nearby co-workers offer firm words of encouragement, and recommend the usage of nicotine patches and other quitting aids prepared by the company at the start of the quit smoking program. The program, which began as a means of promoting health, has grown to become a catalyst for making the bonds of camaraderie even closer.

Five months remain until the year-end nicotine test. I eagerly look forward to the test to detect nicotine levels in blood and urine, scheduled for the end of the year. If things continue as they are, I can foresee us celebrating the success of the entire staff with a grand old party, but it's still too early to let our guard down. This sneaky devil called tobacco easily infiltrates the chinks in a weakened heart. It's because it often asks, "Why should you be afraid to smoke when you don't have to care what other people think of it?"

I earnestly hope that everyone will succeed in quitting tobacco and receive the ample monetary award. I imagine them going home with armfuls of presents for their family members and glowing with the satisfaction of having attained the well-nigh-impossible goal of a smoke-free life.





뉴올리언스에서 보내는 편지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후, 니콜이 피해 현장을 찾았을 때는 집이 통째로 이웃집 마당으로 휩쓸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글 마이클 잔, 연구원, QC and QA , 유니젠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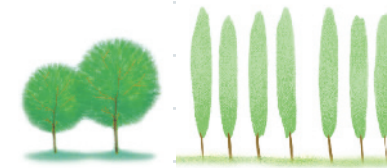
에코넷 가족 여러분께!

이번 뉴올리언스 방문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하여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간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몰랐지만, 대부분의 뉴올리언스 주민들이 지금쯤은 모두 잃어버렸던 집과 삶을 되찾았으리라는 것이 최근까지 가지고 있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구 작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주민들도 이제서야 조금씩 피해 현장을 다시 찾고 있어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적어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하므로 복구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강한 체격의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망가진 잔해들을 모두 치우는 데

에는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혼자서 이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꾼을 고용하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령, 지붕 위에 쌓인 나무를 치우는데 수천 달러가 소요됩니다. 어떤 주민들의 경우에는 자원 봉사자들이 올 때까지 수 개월을 기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 트레일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트레일러는 크기가 상당히 작고 생활하는데 있어 매우 기본적인 사항들만이 겨우 충족되는 데다 덩치가 큰 사람들에게는 좁아서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복구까지의 과정과 오랜 기다림은 주민들에게 큰 좌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에코넷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 뉴올리언스 가정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두 자녀를 둔 니콜은 남편이 하루종일 일을 해 매우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는 까닭에 집을 복구하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후, 니콜이 피해 현장을 찾았을 때는 집이 통째로 이웃집 마당으로 휩쓸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니콜은 집을 다시 제자리로 옮길 돈이 없어 우리에게 집을 폐기처분해 줄 것을 부탁했고, 우리는 니콜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해 보이는 나무를 잘라내는 등 마무리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에코넷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 또한 도움을 준 에코넷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청소그룹이 하얀 집을 해체하고 난 후
- After the cleaning group finished tearing down the white house.
- 집 내부에서 해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이클 잔
- Mike Zahn working inside the white house getting it ready to be torn down.

A letter from New Orle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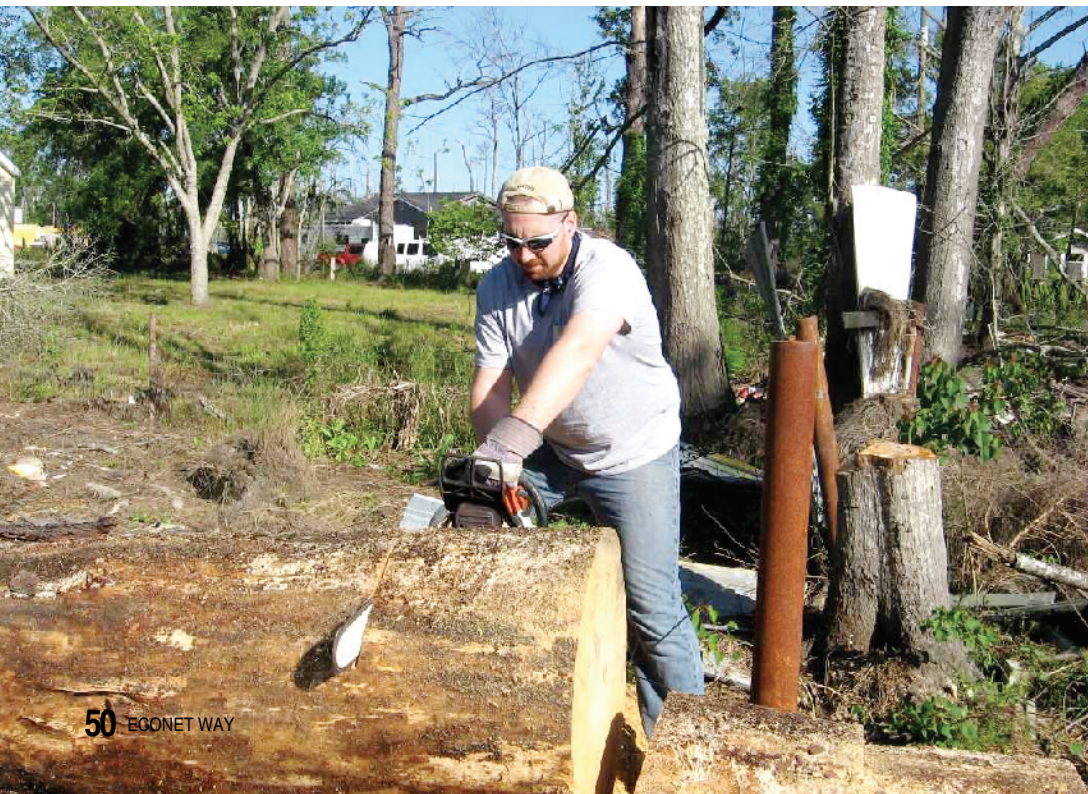
After the hurricanes, Nicole returned to find that her house had moved off the foundation and into the neighbor's yard.

By Michael Zahn, Research Associate, QC & QA, Unigen USA

Greetings Fellow ECONETIANS,

It was a humbling experience to go back to New Orleans again this year. It has been almost 2 years since hurricanes Katrina and Rita hit New Orleans with devastating results. I didn't know what to expect, but I thought that most people would be back and have their homes and lives back to normal by now. This was not what I found.

I believe it will take many years to rebuild all the damaged homes since most people are still in the very early stages of rebuilding or even just coming back to view the damage. Since most homeowners have to spend their day working at a job, there is not much time afterwards to rebuild their home. It can take several months for one normal, healthy person just to remove the damaged material from a home. Since not every homeowner can do the work themselves, they might have to hire workers or wait on a list for someone to help them. Having someone else do the work is very expensive. For example, having trees removed from a roof would probably cost several thousand dollars. Some have



waited months for volunteer workers to come help. Most people live in temporary trailers while trying to rebuild. These trailers are very small and provide only the very basic needs of shelter and can be very 'tight' for bigger people.

The processes and waiting can be frustrating, overwhelming and even disheartening.

With the support of ECONET, our group was able to help one family in particular. Nicole, the homeowner, has two children and her husband works all day in town. He is not able to work on their home much since he returns home very late at night. After the hurricanes, Nicole returned to find that her house had moved off the foundation and into the neighbor's yard. Since there was no way she could afford to move the home back, she had us tear it down and get it ready to be thrown away. We were also able to cut down some trees in her yard that were hazardous. She was very thankful for the work we did and she said, "thank you so much, ECONET, for your help!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I, too, would like to express my most heartfelt thanks to ECONET for helping support this work.



집 옆으로 쓰러진 나무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있는 마이클 잔
Mike Zahn cutting a tree that had fallen by the house into smaller pieces.

왼쪽의 하얀집은 원래 온실 뒤에 있었다. 집주인은 건물이 더이상 살 수 있을만한 상태가 아닐 뿐더러 이웃집 마당으로 쓸려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 건물을 해체해야 했다.

The white house on the left was originally behind the green house.
 The owners needed it torn down because it was no longer inhabitable and was in the neighbor's yard.

우리가 일을 끝낸 후 니콜(해체된 하얀 집의 주인)과 딸 마야의 모습.
우리가 도우러 와줘서 무척 행복해 했다.

Nicole (owner of the white house that was torn down) and her daughter (Maya) after we were finished working. They were very happy that we could come help.



사랑과 행복이 피어나는 '사랑 나눔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아들 가운데에는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몇 년째 생일 파티로 만나는 친구도 있다. 그 환아의 부모는 유니베라의 생일파티 프로그램에 감사하다는 말을 눈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글 박정아 기자, 고객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유니베라 사회봉사단 '사랑 나눔이'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9월, 한사랑 캠페인으로 시작된 '희귀난치병 환아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은 2007년 현재 유니베라 사랑 나눔이 활동의 일환으로 재편됐는데, 매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난치병 환아들의 생일파티를 열어주고 있다.

'사랑 나눔이' 활동은 크게 본사 임직원들의 활동과 대리점의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리점은 지역별로 서울, 경기 인천, 중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지역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참여하는 대리점은 약 30여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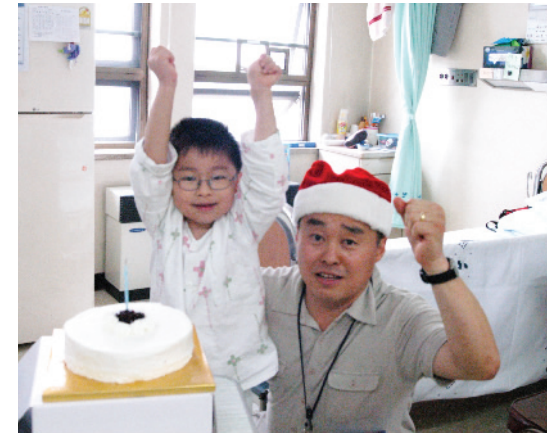
각 지역에서는 결손가정이나 장애인 시설에 후원금을 지원하거나 의료시설 소외지역에 건강상담과 지역 지원 활동,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의 집에 음식과 의류를 들고 찾아가 함께 대화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다.

'사랑 나눔이' 활동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과 연계한 희귀난치병 환아의 생일파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아들 가운데에는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몇 년째 생일 파티로 만나는 친구도 있다. 그 환아의 부모는 유니베라의 생일파티 프로그램에 감사하다는 말을 눈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여하기를 잘했다는 뿌듯한 마음과 오히려 배우는 것이 더 많아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끼게 된다.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활동을 하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방문하여 사진만 찍고 돌아가서 다시는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유니베라가 매월 빠짐없이 생일파티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것에 깊이 감사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활동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랑 나눔이' 담당자는 장기간 입원과 불투명한 치료경과로 인해 힘들어하는 환아와 부모들에게 조그만 기쁨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웃음을 주며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는 유니베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Love Sharers” Where Love and Happiness Bloom

Many of the young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re undergoing long-term treatment; these patients have been meeting with Love Sharers on birthdays for several years. Sometimes, the parent of such children shed tears of gratitude.

By Jeongah Park, CS Team Manager, Univera Korea

Univera’s community service group “Love Sharers” works hard to create a happy world where everyone shares their love with one another.

“Volunteer Service for Children Suffering from Rare and Severe Diseases” kicked off in September 2003 as part of the One Love Campaign. As of 2007, this service was reorganized as part of the activities of Univera Love Sharers; our members visit the Sinchon Severance Hospital each month to give birthday parties for the young patients.

The work of Love Sharers is largely divided into that performed by the main office staff and that of the retail stores staff. Retail stores in Seoul, Incheon, Daegu, Busan, and Gwangju conduct their activities through their respective regional centers.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ting retail stores currently stands at over 30. Each regional group engages in various “love-sharing” activities: giving donations to underprivileged families an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providing medical consultation and support services in areas where there are no medical facilities, and even visiting the lonely elderly or minors supporting their own household with food and clothes.

The Love Sharers activity that boasts the longest tradition is the birthday party hosting for child patients,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the Severance Hospital. Many of the young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re undergoing long-term treatment; these patients have been meeting with Love Sharers on birthdays for several years. Sometimes, the parent of such children shed tears of gratitude. At moments like these, the members of Love Sharers feel a keen sense of pride in their work, as well as deep thankfulness for all that they are learning through these valuable mee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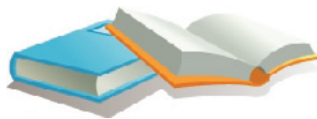


“Love Sharers”

The Severance Hospital staff noted that, although many companies participate in service activities, these rarely return more than once. They lamented that some even come for the photo-op, with no intention of coming back. The staff expressed their deep appreciation for Univera’s unflinching commitment to holding birthday parties each month, and hoped that we would continue our activities for a long time to come.

The director of Love Sharers said, “We would not abandon our work as long as we can bring even a little joy and love to the long-suffering patients and careworn their parents.” It is my sincere hope that Univera will continue to be a reservoir of love and hope, spreading laughter to all of our weary neighbors.





남은 생을 위한 화요일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을 읽고

글 어윤정,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팀, 유니젠 한국

“인간관계에는 일정한 공식이 없네. 모두가 공간을 넉넉히 가지면서 넘치는 사랑으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라네.” 한 순간만이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절실했을 때, 모리가 내게 해준 말이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 책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에 갓 입학한 봄이었다. 그 땐 한창 생기발랄한 시절이라, 그저 잔잔한 감동만 주는 휴먼스토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후 숨가쁘게 돌아가는 직장생활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일을 실수없이 해내야겠다는 중압감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때 펼쳐든 책이 바로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다.

두 번째 만남

책에도 인연이 있는가 보다. 주인공인 미치가 모리 교수를 두 번째 조우했을 때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내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은 실화를 바탕으로 엮은 책이다.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미치 앨범은 대학 시절 사회심리학자인 모리 교수와 인생 전반에 관해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각별한 사제지간이 된다. 미치는 졸업할 때 모리 교수에게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대학을 떠난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미치는 스포츠 기자가 되어 책도 쓰고 라디오쇼도 진행하면서 바쁘게 살아간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흐른 어느 날, 미치는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모리 교수가 '루게릭' 이라는 서서히 전신이 마비되어 결국 심장이 멈춰서 죽게 되는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치는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되어 모리 교수를 만나기 위해 1,110 킬로미터를 날아간다. 어쩔 줄 몰라하는 미치를 너무도 평안히 맞는 모리 교수..

그 순간이 감동적이었다.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미안해하며 스승의 예고된 죽음 앞에 어쩔 줄 몰라하는 제자를 따스하게 감싸주는 모리 교수를 보며 진정한 스승의 모습과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았다.

모리 교수가 죽기 전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된 모리와 미치의 특별한 수업

“죽을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매일 어깨 위에 작은 새를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새에게 '오늘이 그날인가? 나는 준비가 되었나?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나?' 라고 묻지. 다시 말하면, 일단 죽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는 법도 배우게 되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어가면서 평화로울 수 있다면, 마침내 진짜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잖아.”

마지막 귀절이 인상적이었다. 죽어가면서 평화롭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한번도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할까?' 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겐 인생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 하는 화두였다.

“슬프거나 울고 싶을 때는 부끄럼없이 울게. 그리고 나선 그 감정에서 벗어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때에는 느낌을 믿어야 하네. 다른 사람이 자네를 믿게 하려거든 자네 역시 그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하네. 어둠 속에서도 말이야.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에도.”

모리 교수가 미치에게 했던 말들은 그대로 내게 스며들어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다.

요즘 여러가지 이유로 삶을 버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나도 지금 그러한 삶의 질 곡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신에게 허락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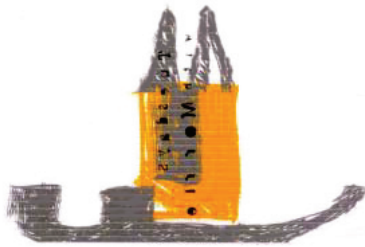
시한부 선고를 받은 모리 교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생의 시간에서 사랑하는 제자 미치 앨범에게 '화요일' 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했던 것처럼..!

※ 유니젠 한국의 경영지원본부는 매월 책을 읽고, 읽은 책에 대해 감상문을 작성하여 함께 공유하고 있다.



Tuesdays Devoted to the Remainder of One's Life

Living Tuesdays with Morrie



by Eunjung Eo, General Management Division, HR & General Affairs Team, Unigen Korea

“There is no formula to relationships. They have to be negotiated in loving ways, with room for both parties.” These are the words Morrie imparted to me when I was desperate for a single moment of respite in which to breathe freely.

Tuesdays with Morrie

I first came across this book in the spring of my freshman year in college. Back then, when I was full of energy and vitality, I regarded the book merely as a touching story of human interest. Later, after I graduated and got a job, I found myself suffering constantly under the compulsion to adapt to the hectic pace of work and the grueling pressure of having to carry out my duties with no room for error. I was virtually suffocating from the tension and duress. That was when I turned to Tuesdays with Morrie once more.

A second meeting

It seems there is a kind of destiny that keeps steering us back to certain books. Just as Mitch, the book's protagonist, attained a profound appreciation of life during his second encounter with Professor Morrie Schwartz, my second reading of the book came to me with the deep resonance of profound understa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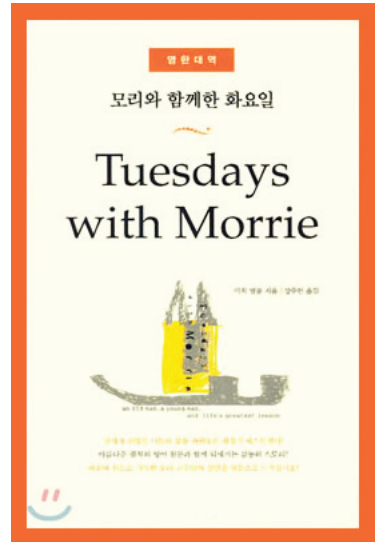
Tuesdays with Morrie is based on actual events. During his college years, the book's author and protagonist Mitch Albom exchanges heartfelt conversations about life with his sociology professor, Morrie Schwartz, and build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him. At his graduation, he promises Morrie that he will come back to see him.

But Mitch fails to keep his promise: as a sports reporter, he lives a busy life, writing books and anchoring radio shows.

Sixteen years fly swiftly by until one day. While flipping through TV channels, Mitch learns that Morrie is dying of Lou Gehrig's disease—a debilitating condition that slowly paralyzes the entire body and ends by paralyzing the heart itself.

Crazy with guilt and concern, Mitch flies 1,110 km across the continent to see Morrie. In stark contrast to the frantic protagonist, Morrie welcomes his prodigal student with the utmost tranquility and aplomb.

This moment moved me deeply. The student stands at a complete loss, remorse over his neglected promise and grief for his teacher's inevitable death driving him to distraction, but Morrie embraces his long-lost student with warm grace. What I saw in that scene were the greatness of a true teacher and the majesty of a human being undaunted in the face of death.



In the weeks before Morrie's death, Morrie and Mitch meet each Tuesday for a series of special lectures

“How can you ever be prepared to die?”

“Every day, have a little bird on your shoulder that asks, ‘Is today the day? Am I ready? Am I doing all I need to do? Am I being the person I want to be?’ The truth is, Mitch, once you learn how to die, you learn how to live. If we can ultimately be at peace as we die, we can finally do the really difficult thing.”

The final passage was especially moving for me. How must we live in order to be at peace as we die? Amid all the bustle of life, I'd never once thought about how I should meet death. Morrie's words prompted me to ponder deeply about life itself.

“When you're sad or want to cry, cry without shame. Then let it go and move on to other emotions.”

“Sometimes you cannot believe what you see, you have to believe what you feel. And if you are going to have other people trust you, you must feel that you can trust them, too—even when you're in the dark. Even when you're falling.”

What Morrie told Mitch seeped into my own mind and became valuable teachings for me. These days, I see so many people struggling to cope with life for a variety of reasons. I'm not quite free from such fetters either, but I want to propose that we allow ourselves at least one day out of the week—just as Morrie bestowed on his beloved student Mitch Albom those special ‘Tuesdays’ out of the short time he had left on this earth.

※ In the General Management Division of Unigen Korea, each employee reads a book every month and writes his or her own personal review, which is then shared among others in the department.

가족과 함께 꾸미는 건강한 여름 식탁

글·사진 김민경 대리 요리 공지현 부장, (주)이음에프엔비

계속되는 무더위로 입맛을 잃기 쉬운 여름이다. 이럴 때 가족과 함께 만들어 먹는 색다른 요리는 입맛은 물론 기분까지 한껏 돋워줄 수 있다. 열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더위를 이기는데 좋은 닭고기,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발아 현미,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 수박을 이용해 건강하고 풍성한 식탁을 함께 꾸며보자. 모든 조리법은 2인 기준.

크림치즈, 시금치, 삼색 파프리카로 속을 채운 닭 가슴살 요리

- 재료 : 닭 가슴살 2쪽, 초록·노랑·빨강 파프리카 각 20g씩, 시금치 30g, 올리브 오일 10g, 비트쌈 10g, 청경채쌈 10g, 소금·후추 약간씩
- 발사믹드레싱 : 발사믹비네거 2작은술, 올리브오일 4작은술, 다진 양파 2작은술, 설탕·소금·후추 약간씩

• 만드는 방법

1. 닭 가슴살은 칼집을 낸 후, 크림치즈와 야채를 채워넣을 수 있도록 주머니처럼 만들어 놓는다.
2. 올리브오일을 닭 가슴살 앞뒤로 바르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뒤 30분 정도 재워둔다.
3. 드레싱 재료를 모두 골고루 섞어 발사믹드레싱을 완성해 둔다.
4. 삼색 파프리카는 꼭지를 떼고 심과 씨를 제거한 다음 길쭉하고 얇게 썰어둔다.
5. 시금치는 끓는 물에 데친 후 건져 얼음물에 바로 담가 식힌 뒤 물기를 제거한다.
6. 비트쌈과 청경채쌈은 얼음물에 담가 싱싱하게 살려둔다.
7. 크림치즈는 거친 체에 내린 후 모든 야채와 골고루 섞어서 닭 가슴살 속에 채운 뒤 입구를 이쑤시개로 찢어서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8. 프라이팬을 달군 뒤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7의 닭가슴살을 노릇하게 구워낸 뒤 실온에서 그대로 식힌다.
9. 접시에 야채를 보기 좋게 담고 닭 가슴살을 어슷하게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야채 주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10. 완성해 둔 발사믹드레싱은 다시 한번 골고루 섞어 야채와 고기 위에 골고루 뿌려 낸다.



발아현미, 흑미,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리조토

- 재료 : 발아현미 150g, 흑미 10g, 그린 아스파라거스 2개, 파르마지아노 레지아 노치즈 20g, 야채육수 700ml, 양파 10g, 올리브오일·소금·후추 약간씩
- 야채육수 재료 : 양파 300g, 당근 100g, 셀러리 50g, 대파 20g, 물 1L

• 만드는 방법

1. 야채육수의 모든 재료를 넣고 30분 정도 은근한 불에서 끓인 후 고운 체에 걸러 식혀둔다.
2. 발아현미와 흑미는 깨끗이 씻은 뒤 각각 12시간동안 물에 불린다. 불린 흑미와 발아현미는 체에 받쳐 물기를 빼둔다.
3. 아스파라거스는 껍질을 얇게 벗겨낸 뒤 어슷하게 잘라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낸 후 바로 얼음물에 담가 식혀 물기를 제거해 둔다.
4. 양파는 곱게 다져서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살살 볶는다. 볶다가 투명해지면 아스파라거스를 넣고 두어 번 섞어준 뒤 발아 현미와 흑미, 야채육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계속 볶아준다. 야채 육수가 없다면 정수된 물을 사용해도 된다.
5. 물기가 잦아들면 육수를 조금씩 첨가하면서 계속 저으며 볶아준다.
6. 현미와 흑미가 밥과 죽의 중간 정도가 되면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프라이팬을 불에서 내려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치즈를 뿌려 골고루 섞은 뒤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 낸다.



수박 셔벗

- 재료 : 수박 200g, 설탕 10g, 물 10g, 레몬즙 1/8개 분

• 만드는 방법

1. 설탕, 물, 레몬즙을 넣고 약한 불에서 기포가 조금씩 올라올 때까지 끓인 뒤 불에서 내려 식혀 둔다.
2. 믹서기에 '1' 과 씨를 제거한 수박을 넣고 갈아 냉장고에 넣고 얼린다.
3. 약 12시간 정도 얼린 뒤 꺼내서 숟가락으로 긁어서 유리볼 등에 담아 낸다.



eum

- 팔빙수
- 본 쿠폰은 2007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저녁 식사시간에 한 테이블당 한 장 사용 가능합니다.
-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 주문 전에 미리 제시하셔야 합니다.

coupon
Food & Beverage

A Healthy Summer Meal Prepared with Your Family

Writing and Photography by Minkyung Kim, Assistant Manager Cooking by Jihyeon Gong, Director, Eum F&B

It's easy to lose your appetite in the summer because of the continuously hot weather. A good way to pique your appetite is to make something special with your family for a change of mood. Let's try making a healthy meal using chicken, an ingredient which is rich in protein and low in calories that will help you combat the summer heat, malted brown rice which will help increase your body's natural healing abilities, and watermelon, a cold and sweet fruit which is perfect for the summer. All recipes are based on 2 servings.

Chicken Breast Stuffed with Cream Cheese, Spinach, and 3 Colored Paprika

- **Ingredients:** 2 chicken breasts, 20g of green, yellow and red paprika each, 30g of spinach, 10g of olive oil, 10g of beet sprouts, 10g of bok choy sprouts, salt and pepper
- **Balsamic Dressing:** 2 teaspoon of balsamic vinegar, 4 teaspoons of olive oil, 2 teaspoon of minced onion, a pinch of sugar, salt and pepper

• Method of Cooking

1. Cuts are made in the chicken breasts to create compartments which can be filled with cream cheese and vegetables.
2. The chicken breast is coated front and back with olive oil and seasoned with salt and pepper and allowed to sit for 30 minutes.
3. The ingredients for the dressing are mixed together to finish the balsamic dressing.
4. The stems, cores and seeds are removed from the paprika of three colors and the paprika is cut into long, thin strips.
5. The spinach is parboiled in boiling water, taken out and cooled in ice water and its moisture is removed.
6. The beet and bok choy sprouts are put in ice water to maintain their freshness.
7. The cream cheese is put through a coarse strainer and mixed with the vegetables. Then, it is stuffed into the compartments made in the chicken breasts after which the compartments are closed using toothpicks.
8. A pan is preheated and olive oil is spread on it. Then, the chicken breasts prepared in number 7 are cooked in the pan and allowed to cool at room temperature.
9. The vegetables are arranged on a dish and the chicken breasts are cut into bite-sized pieces with the vegetables placed surrounding them.
10. Finally, the balsamic dressing is mixed together once more and sprinkled over the chicken and vegetables.

Malted Brown Rice, Black Rice and Asparagus Risotto

- **Ingredients:** 150g of malted brown rice, 10g of black rice, 2 stalks of green asparagus, 20g of Parmigiano-Reggiano cheese, 700 ml of vegetable stock, 10g of onion, olive oil, salt, pepper
- **Ingredients for the Vegetable Stock:** 300g of onion, 100g of carrot, 50g of celery, 20g of spring onions, 1 liter of water

• Method of C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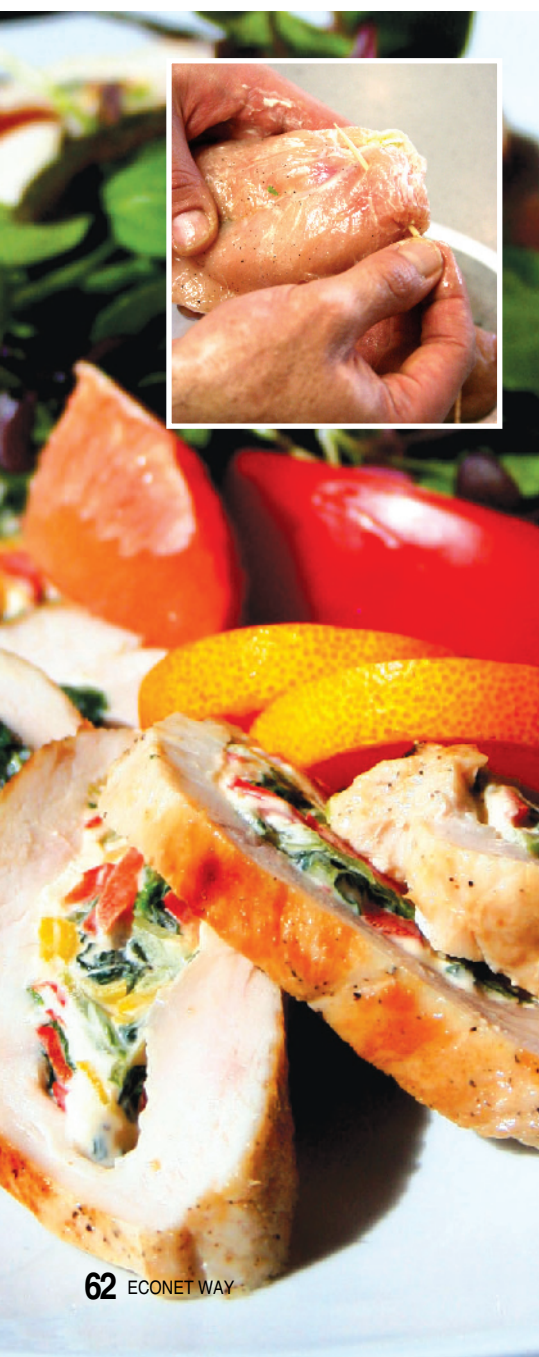
1. All the ingredients for the vegetable stock are combined and boiled over a low flame for 30 minutes. Then the stock is strained and cooled.
2. The malted brown rice and black rice are washed and soaked in water for 12 hours.
3. The skins of the asparagus are removed and they are cut diagonally into pieces. Then they are parboiled in boiling water and salt, cooled in ice water and their moisture is removed.
4. The onion is diced and cooked in a pan with olive oil. When the onion becomes translucent, the asparagus is added and everything is stirred twice. Then, small amounts of the malted brown rice, black rice and vegetable stock are added and everything is cooked together. If vegetable stock is not available, it is also all right to use water from a purifier.
5. The stock is constantly added as the liquid reduces and everything is stirred together and continuously cooked.
6. When the malted brown rice and black rice are in a state which is the middle of boiled rice and porridge, it is seasoned with salt and pepper. Then, the pan is taken off of the fire and sprinkled with the Parmigiano-Reggiano. Finally, everything is mixed together and served on a plate.

Watermelon Sherbet

- **Ingredients:** 200g watermelon, 10g sugar, 10g water, juice from an eight of a lemon

• Method of Cooking

1. The sugar, water and lemon juice are combined and cooked over a low flame until the mixture begins to boil and small bubbles begin to appear. Then it is taken off the fire and allowed to cool.
2. The mixture from number 1 and the watermelon which has been seeded are put in a blender and ground. Then, the mixture is put into a freezer and frozen.
3. After the mixture has been in the freezer for 12 hours, a spoon is used to scrape the sherbet and serve it in glass bowls.



eum

- Patbingsu (Korean Shaved Ice and Red Beans).
- This coupon is valid until September 30th, 2007.
- One coupon per table may be used for dinner.
- It may not be used along with other discount services.
- Please show your coupon before making your order.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1 에코넷 기업본부 상반기 워크샵 실시



에코넷 한국 홀딩스 임직원은 지난 7월 5일 강촌 리조트에서 워크샵을 가졌다. 이번 워크샵은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하반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성취한 것과 미흡했던 점, 그리고 획득한 역량은 무엇이었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다.

워크샵을 마친 후에는 보트를 타고 래프팅을 즐겼는데, 동료들과 서로 하나가 되어 빠른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중요한 시점에서 팀워크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됐다.

하루 일정이라 빠듯하게 진행된 워크샵이었지만 에코넷 한국 홀딩스의 하반기 계획 수립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1st Half of the Year Workshop Held at ECONET Headquarters

This past 5th of July, the staff and executives of ECONET Korea Holdings attended a workshop at the Gangchon Resort. People shared what they thought were the strong points and weak point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of ECONET Korea Holdings as well as what abilities they gained during that time in order to plan out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fter the workshop, everybody enjoyed rafting together. It was a time when coworkers could learn to become one and increase their teamwork as they fought their way through rapid currents. The schedule of the workshop was very hectic, but the basic cornerstones were set in order to pla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of ECONET Korea Holdings.

2 에코넷웨이 기자단 역량 강화교육 실시

한국 에코넷웨이 기자단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2일 1차 교육에 이어 6월 14일 2차 교육이 실시됐다. 사보협회 김흥기 회장과 김종민 사진작가를 초빙하여 사보 편집의 방향과 카메라 구도 등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됐는데, 그 효과가 금세 나타나 지난 6월호에 실린 기자들의 사진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한국 에코넷웨이 기자단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깊어져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보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Education Session for ECONET Way Korea's Press Corps to Improve their Abilities



ECONET Way Korea held two education sessions, the first on the 12th of April and the second on the 14th of June, in order to improve the abilities of its press corps.

President Heunggi Kim of the Korean Brochure Organization and the photographer Jongmin Kim were invited to give training on brochure editing and photographic composition. The effects of this training could be seen right away in the improvement of our reporters' pictures in the June brochure. In the future, more training and education will be provided to the press corps of ECONET Way Korea, so they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work and may make an even more improved brochure in the future.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3 '리제니케어·K' 매일경제 2007 상반기 히트상품

유니베라의 관절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 '리제니케어·K'가 2년 연속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상반기 히트상품에 선정되었다. (6월 27일자 매일경제신문 '2007년 상반기 히트상품' 섹션 참조)

국내 최초 천연식물을 소재로 한 '리제니케어·K'는 지난해 5월 초 출시 이후 두 달도 채 안돼 매출 100억원을 돌파해 2006년 상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인기를 얻으면서 출시 1년이 채 못돼 매출액 270억 원을 돌파해 2년 연속 히트 상품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주자 '리제니케어·K'가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본다.

RegeniCARE·K, Selected by Maeil Economy Daily as a Hit Product of the First Half of 2007



Univera's functional health food which helps improve joints called, RegeniCARE·K, was selected by Maeil Economy Daily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as a Hit Product of the first half of the year. (See the 2007 Hit Products Section in the June 27th issue of the Maeil Economy Daily)

RegeniCARE·K, the first such product to be made with all natural herbs in the nation, first came out on the market in May of last year, reaching 10 million dollars in sales only 2 months later and being selected as a Hit Product of the

first half of 2006. The product's popularity was maintained with 27 million dollars in sales being reached a little less than a year since the product began to be sold. It is expected that RegeniCARE·K will continue to receive the love of consumers for a long time to come.

4 CSI 결과 보고회



지난 7월 5일, 유니베라가 2월부터 준비해온 고객 만족도 조사(CSI) 결과 보고회가 있었다.

유니베라의 대리점 사장, UP(Univera Planner),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만족도 조사는 고객의 소리를 정확하게 판단해 향후 회사의 경영 전략과 전술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회는 현재 유니베라의 모습을 고객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고객들이 느끼는 유니베라의 장단점, 특히 당장에 개선할 점과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등을 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Report on the CSI

This past July 5th, a conference was held to report the results of the consumer satisfaction research (CSI) which Univera had been preparing since February.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managers of Univera branches, UPs (Univers Planner), and consumer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needs of our consumers and is expected to bring many changes in the management strategies and tactics of the company in the future. The conference was a very valuable one since we could look at the

company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learn about consumers think about the strength and weaknesses of Univera as well as find out the short term and long term improvements which must be made in the company.

5 등산 동호회 K2, 마니산 등반



유니베라의 등산 동호회인 K2가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동안 마니산 등반 대회를 가졌다. 김영환 사장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은 우리나라 역사에 큰 의미를 지닌 마니산을 등반하고 회원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반을 위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던 부회장 김진완 전임 연구원(생명과학연구소 소속)과 총무인 전익표 사원(교육본부 소속)을 포함한 동호회 회원들은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험한 등산로를 선택해 등반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마니산 산정에는 단군 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했다는 참성단(塹城壇:사적 136)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지금도 개천절이 되면 제례를 올리고, 전국체육대회의 성화(聖火)가 채화된다. 더운 날씨 속에도 이처럼 한민족에게 의미있는 마니산을 등반한 K2 회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더욱 열중해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을 다짐했다.

Univera's Mountain Climbing Club K2 Scales Mt. Mani-san

Univera's mountain climbing club K2 held a mountain climbing competition at Mt. Mani-san over the course of 2 days from June 30th to July 1st. President Youngwhan Kim and the members of the club climbed Mt. Mani-san which has a

deep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Korea, fostering unity amongst the members of the club. The members of the club including club vice president and researcher Jinwan Kim (Institute of Life Sciences) and club secretary Ikpyo Jeon (Education Department), who helped the other members have a safe and fun climb, chose the steep route which isn't used very often by most climbers, and showed their tenacity and resolve in overcoming difficulties.

The Chamseong-dan Altar (Historic Site 136), which is said to be built by the country's founder Dangun Wanggeom with the purpose of worshipping the sky, is located on the summit of Mt. Mani-san. This altar is still used for worship rituals on Gaecheonjeol, or National Foundation Day, and is where the torch is lit for the National Sports Games. The members of K2 who climbed Mt. Mani-san, despite the hot weather, resolved to return to their work with a new dedication to produce even better results.

네이처텍 / Naturetech

6 행복한 일터 만들기 첫걸음



지난 5월 17일, Happy Work Place를 만들기 위한 행사의 하나로 직원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5월에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과 CEO의 진솔하고 행복한 대화의 장이 열린 것이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사라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자리라 생각되었지만, 딱딱한 회의실에서 벗어나 사내 식당과 야외벤치에서 이루어져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회사 생활에 필요한 제안과 가정사를 서로 나누며 함께 어울린 이번 자리는 네이처텍을 더욱 친근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FUN 제조회사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첫걸음이었다. 매월 이루어질 이 행사는 네이처텍을 대표하는 기업문화로 정착될 것이다.

The First Step to Building a Happy Workplace

On May 17, as part of the effort to build a "Happy Workplace," we celebrated the birthdays of our various staff members. It was an opportunity for a frank and spirited conversation between the CEO and those employees whose birthdays fell in May. Initially, there were apprehensions about the potential unfamiliarity and awkwardness of this first-time event, but by taking the conversation outside the conference room to the company cafeteria and outdoor benches, we were able to create a relaxed and comfortable atmosphere.

This event, at which participants conversed about their family lives and exchanged suggestions for the workplace, marked the first step toward making Naturetech a "fun" company where everyone can share closer bonds and derive pleasure from work. The event will continue to take place on a monthly basis, and cement its place as a representative part of Naturetech's corporate culture.

7 2006년도 우수사원 해외 연수



2006년 말, 리니시에 신제품 개발로 최우수상을 받은 연구개발팀의 방기만 과장 부부와 ERP 안정화

및 결산단축에 기여해 우수 사원상을 받은 경영지원팀의 윤성원 대리 부부, 액상자동라인 안정화에 기여해 역시 우수 사원상을 받은 생산기술팀 윤정필 부부가 여름을 맞아 지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태국(푸켓)을 다녀왔다. 가족과 함께 연수를 마친 세 명의 사원은 임직원들과 여행 소감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Overseas Training for Outstanding Employees of 2006



Employees who received awards at the end of 2006 for their outstanding contributions during the year were flown to Phuket, Thailand, for a five-day trip from May 21 to 25. The group included: Gimang Bang (Research Development Team), honored with the highest accolade for developing new products in the L'initie line; Sungwon Yun (General Management Department), who received an award for excellence in recognition of his contributions in ERP stabilization and settlement of accounts; and Jungpil Yun (Product Technology Team), also honored with an excellence award for his work in stabilizing the fluid automation line. Each employee was accompanied by his spouse. After the completion of their overseas training, the three award recipients enjoyed a pleasant conversation with the executive staff, during which they offered their thoughts and impressions of the trip.

8 Friendly day 행사

동호회 회장들이 주최하는 Friendly day 행사가 지난 5월 30일, 처음으로 열렸다. 간단한 다과와 음료가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들도 함께 했는데,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 동호회 임원들이 진행을 맡아 주었다.



빼빼로 먹기, 콧바람으로 촛불 끄기, 요구르트 빨리 마시기 등 다채로운 레크레이션이 벌어진 이번 행사는 직원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동시에 행복한 일터의 분위기를 만들어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Friendly Day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가족의 날에 열릴 계획이다.

Friendly Day Celebration



May 30 saw the opening of the first "Friendly Day" celebration, hosted by Naturetech's various community club presidents. Even the executives and senior staff took part in this event, which was enlivened with light snacks and beverages and emceed by the clubs' staff members.

Cookie-eating, blowing out candles with one's nose, yogurt speed-drinking, and other recreational events were held during the celebration. Friendly Day will continue to be observed in future on the last Wednesday of each month, as a time for cementing friendships among co-workers and creating a lively workplace atmosphere.

9 명소활동 중간 검사



지난 5월 30일 Naturetech의 현장 6-Sigma활동인 명소활동에 대한 임원진의 중간점검이 있었다. 이 명소 중간 점검은 Naturetech의 현장 6-Sigma활동의 진척 사항을 임원진이 직접 확인하고 명소활동에 대한 격려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간점검 결과, 화장품 조제실(에벌레 분임조)과 화장품 원료창고(다사랑 분임조), 식품 정제라인(개미 분임조)의 변화가 눈에 띄어, 최우수 분임조에 에벌레 분임조가 우수 분임조에 다사랑, 개미 분임조가 선정되어 6월 조회 때 시상이 있었다.

6-Sigma 활동으로 제조전문회사로서의 위용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Naturetech의 역동적인 모습이 엿보였다.

Interim Evaluation of Process Enhancement Activities

On May 30, the executive staff conducted an interim evaluation of Naturetech's process enhancement activities, which are part of the company's 6-Sigma program. This evaluation was designed as an opportunity for the executive staff to personally witness the progress of the process enhancement plan and provide encouragement for such efforts.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revealed notable progress in the cosmetics preparation lab (Caterpillar Team), the cosmetics raw materials warehouse (Dasarang Team), and the food purification line (Ant Team). The Caterpillar Team was duly honored with the top award, while

the Dasarang Team and the Ant Team also received awards for excellence. These awards were given out during the June assembly.

All in all, the occasion showcased the dynamism and vitality of Naturetech, and its growing reputation as 6-Sigma-enhanced manufacturing company.

10 화장품 첫 OEM 출시에 따른 첫 출고 기념 촬영



지난 6월 13일 네이처텍 화장품의 첫번째 OEM 제품 출시 기념식이 있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피부 구현을 위한 최상의 화장품인 네이처텍의 첫 OEM 제품 출시를 위해 네이처텍의 모든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탄생한 네이처텍 화장품의 OEM 제품은 조만간 대중들에게 첫선을 보이면서 화장품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ECONET 기업 이념에 맞게 연구진은 끊임없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세계 최고의 천연화장품회사로서 전인류에게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OEM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Launching of First OEM Cosmetic Product and Commemorative Photo Op

On June 13, Naturetech celebrated the release of their first OEM cosmetic product. Naturetech's new OEM product provides optimum care for the realization of healthy and vibrant skin. Its launch event brought together NatureTech's entire staff and executives.

The OEM cosmetic product was born as a result of long research and painstaking effort. Shortly due to make its first appearance before consumers, the product is expected to create a new wave in the cosmetics industry. True to ECONET's corporate philosophy of "bringing the benefits of nature to humankind," the research team will continue their dedication to R/D and produce new OEM products that will bring happiness to all from the finest natural cosmetics company in the world.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11 미국수출 해상선적 개시



항공으로 이용하던 수출운송방식을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주)유니젠이 드디어 지난 6월 26일에 첫 번째 해상 선적을 개시했다. 원가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확보와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따른 재원(財源) 마련을 위해 시작한 이번 해상 선적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간다면, 수출가격 경쟁력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Marine Transport for Export to U.S. Begins

Unigen, which has been making vigorous efforts to convert its air shipping-based export to marine shipping, finally commenced marine transportation of export cargos on June 26, 2007. The sea-based shipping was launched to secure export competitiveness through cost reduction as well as financial resources for improving employee welfare. If the marine shipping continues,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company's export price competitiveness.

12 Natural Products Expo Asia 2007 참가



(주)유니젠은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홍콩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Natural Products Expo Asia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시회에 참가한 (주)유니젠은 유니베스틴케이, 유니백스, 유니플라본 등 자체 개발한 고유 신소재를 출품하여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는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방문객들에게 유니젠의 신소재를 효과적으로 인식시키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는 관계사인 Naturetech도 함께 참가하여 에코넷의 천연물 네트워크와 수직 계열화 체계에 대한 강한 인상을 참가자들에게 심어주었다.

Participation in Natural Products Expo Asia 2007



Unigen participated in the Natural Products Expo Asia 2007 held at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over three days from June 27 to June 29.

At the exhibition, Unigen garnered much attention from visitors by presenting the company's independently-developed new materials, including Univestin-K, Unibex and Uniflavone.

The Expo provided Unigen with an excellent opportunity to advance into the Southeast Asian market including Hong Kong, Taiwan and Malaysia, and to effectively raise awareness of the company's new materials amongst the visitors.

Unigen's affiliate, Naturetech, also participated in the Expo, leaving a strong impression on the visiting crowds vis-a-vis ECONET's natural product network and vertical integration.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13 이병훈 총괄 사장의 레이시 오피스 신입사원과의 대화



6월 8일 금요일, 이병훈 총괄 사장은 레이시 오피스의 신입사원들을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병훈 총괄 사장을 비디오를 통해서만 봐왔던 신입사원들은 직접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무척 들떠 있었다. 이병훈 총괄 사장은 우리가 회사를 통해 추구하고 있는 수직적 통합의 중요성과 이 사업 모델이 우리가 중요시하는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Mr. Lee's Meeting with New Employees

On Friday, June 8th, Mr. Bill Lee warmly welcomed all new employees to the ECONET



family during his visit to the Lacey office. These employees, who had known him only through videos until now, were very excited to have a chance to meet him and actually sit with him face to face. He spoke about the importance of the vertical integration we are pursuing with the companies and explained how this business model enables the high quality product and service that is so important to all of us.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14 유니베라 미국의 기록적인 5월

5월은 유니베라 미국이 기록적인 판매를 달성한 달이었다. 유니베라 미국과 유니베라 캐나다의 통합 판매총액이 670만불을 기록했는데, 이는 유니베라 미국 역사상 어떤 달의 판매 성적보다도 우수한 것이다. 두 번째로 높은 판매를 기록한 때는 2005년 12월로, 그 때의 판매액은 654만 2천불이었다.

또한 이번 8월에 플로리다의 올란도에서 열리는 연례 컨벤션의 입장권이 4,200장이나 팔렸다. 작년에 판매된 입장권이 1,700 장 임을 감안할 때 이는 엄청난 판매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컨벤션의 입장권은 여전한 인기를 누리며 판매 중인데, 유니베라 미국은 앞으로 4,500장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Univera USA's Record Breaking May

May was a record breaking month for Univera USA. The combined sales of Univera USA and Univera Canada reached \$6.7 million which is higher than the sales of any month in Univera USA's history. The 2nd highest sale was \$6.542 mil in Dec 2005.

15 유니베라 고객관리센터의 Serve First 프로젝트

They also sold 4,200 tickets for the Annual Convention to be held in Orlando, Florida, this August. This was compared to last year's ticket sales of 1,700. Tickets are still on sale and their goal is to sell 4,500 tickets this year. Congratulations, Univera USA, on a great month!

에코넷 직원 중 한 명인 쉐라 헤이즌의 남편, 제임스 헤이즌이 이라크에서 복무 중이다. 고객 관리센터는 에코넷 미국 홀딩스의 인가와 도움으로 제임스의 팀에 있는 군인들에게 전달할 50개의 구호 패키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 패키지에는 AgelssXtra 와 Agelss Essentials은 물론이고 칫솔, 치약, 면도기 등의 간단한 생활필수품이 포함됐다. 에코넷은 고객관리 센터에 정성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Serve First Project by Univera Ca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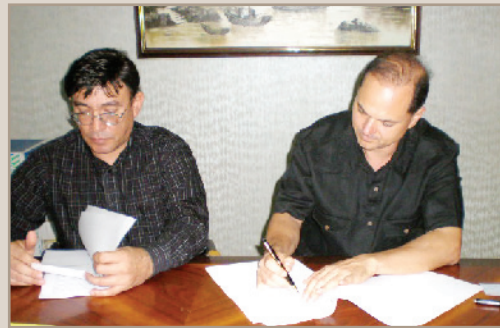
James Hazen, the husband of one of our own, Sheila Hazen, is serving in Iraq. The Care Center, with the help and approval of ECONET USA Holdings, was able to put together fifty "care" packages for the men in his unit. These packages contained, of course, AGELESS Xtra and AGELESS Essentials, as well as simple necessities like toothbrushes, toothpaste, razors, etc. Thanks for putting the "CARE" in Care Center!

알로콧 미국 / Aloecorp USA

16 알로콧 멕시코 법인 파누코(panuco)에 추가로 토지 60만평 계약

지난 6월 11일 알로콧 멕시코 법인은 약 60만평 (200ha)에 달하는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였다. 새로 구입한 토지는 베라크루즈(Veracruz)주, 파누코(panuco)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토지 바로 옆에 파누코(panuco) 강이 흐르고 있어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개수 걱정을 덜고 토양 역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여 앞으로 더욱 건강한 잎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새 농장에는 알로에 약 250만 그루가 9월 말까지 식재될 예정이며, 기존에 심겨져 있는 여러 과일나무들이 농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더 흥겹게 맞이할 예정이다.



토지 계약식 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어네스토 살가도(멕시코 생산 담당 상무보)

Ernesto Salgado, Director of Mexico Operation, signs a contract for land purchase.

Aloecorp Mexico Signs Contract for Additional 200ha of Land in Panuco, Mexico

On June 11, 2007, Aloecorp Mexico purchased an additional 200ha of land. The newly-purchased site is located in the city of Panuco in the Mexican province of Veracruz. With Panuco River in close proximity to the site, the company will have easier access to irrigation, which is an absolute necessity for aloe farming.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site's superior soil will help provide healthier leaves in the future.

At this new farm, about 2.5 million aloes will be planted by the end of September while a variety of existing fruit trees will provide a more delightful welcome to visitors.

알로콥 중국 &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17 중국 하이난성 대표단, 한국 기업 투자 환경 설명회 4일 개최
한국경제 2007, 07, 04 14:00:00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정부 대표단이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4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투자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 정부 대표단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하이난 성의 경제적 입지와 한국 기업들의 투자 현황 및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소개했다.

웨이류청(Wei Liucheng / 衛留成) 성 위원회 서기는 "한국은 자금과 기술 관리 경험 등의 장점이 있고, 하이난성에는 풍부한 노동력 자원이 있다"며 "하이난성과 한국의 합작은 상호간 필요한 조건을 맞춰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니베라 이병훈 총괄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중국 하이난성(海南省)과 함께 세계 수준의 고급리조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니베라는 하이난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맑은 공기, 사람들의 마음씨를 정신과 육체가 피로한 현대인에게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괄사장은 또 "올해 10월부터 가동될 하이난 공장에서 생산된 알로에 원료 및 완제품이 한국, 미국 등지에 수출될 것"이라며 "한국의 경영 노하우와 중국 하이난의 기후 및 인력, 행정 지원이 결합된 유니베라의 제품이 전 세계를 누빌 날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총괄사장은 "유니베라가 하이난성을 투자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기후, 일조량 등이 알로에 사업에 적절하다는 것만은 아니었다"며 "그 보다는 하이난성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유치 노력과 배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Delegation from Hainan Province, China Held Presentation on July 4th for Korean Business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Korea Economic Daily, July 4, 2007, 2 PM

A delegation from the government of Hainan Province in China held a presentation for Korean businesses at the Crystal Ballroom in the Lotte Hotel Seoul to attract business investments.

The government delegation introduced the economical benefits of doing business in Hainan Province and the amount of foreign investments they have attracted from abroad. They also explained the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for foreign businesses.

Provincial Committee Secretary Wei Liucheng proclaimed that "Korea's financial clout and technical expertise are very strong, while Hainan Province has a large, stable labor force," Thus, in his words, "Collaboration between Hainan Province and Korea will be based on complementing each other's strengths and this will unleash the full potential of the partnership!"

In his congratulatory message, Bill Lee, chairman of Univera, revealed his plans to build a world-class resort business in Hainan Province. He proposed to "provide a resort where people can relax and relieve their stress amidst the beautiful mountains, stunning beaches, and clean air of Hainan.

Chairman Lee also mentioned that "the Hainan factory, which will begin operations in October, will export Aloe base ingredients and Aloe products to Korea and America" and the "the fusion of Korea's management know-how and ideal business environment in Hainan, including its optimal weather conditions, stable labor force, and supportive local government, will make Univera the leading company in the world one day."

Chairman Lee also added that, "the reason why we chose to locate our business in Hainan Province was not just based on its good weather conditions and sunny weather." He goes on to say that "the vigorous support and incentives from the Hainan provincial government were the key reasons we selected Hainan."

18 일본 식품소재 및 첨가물 박람회, 2007



알로콥 중국은 국제영업담당 제임스 양을 일본시장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5월 29일부터 6월 1일에 걸쳐 일본에 파견하였다. 출장기간 동안 제임스는 일본 식품소재 및 첨가물 박람회(IFIA Japan 2007)를 관람하고 알로콥 현지 배급업체들을 방문하였다.

IFIA Japan은 일본에서 제일가는 식품소재와 첨가물 전시회이며 아시아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행사이다. 현지 업체들 외에도 미국, 한국, 중국, 벨기에, 호주, 인디아 등지의 업체들이 각사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해 몰려들며, 그 수는 300업체를 능가한다. IFIA를 통해 선보여지는 제품들은 대개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감미료, 산미료, 향미료 유효제, 안정제, 방부제 등(30% 이하)이며, 둘째는 자연식품소재 원료 및 추출물(70% 이상)이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세계 각국의 식품제조업체나 배급업체에서 파견된 구매 및 연구개발 인원들이며, 역대 통계자료에 의하면 방문객의 총 수가 3만을 넘는다고 한다.

알로콥 중국의 새로운 식품부문 배급업체인 히구찌 역시 이번 전시회에 제품을 선보였으며 알로에 관련 문의를 약 20건 접수하였다. IFIA는 알로콥이 일본

의 식품소재 업계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IFIA Japan 2007



As one of the initiatives to develop the Japanese market, Aloecorp China sent international sales manager James Yang to visit Japan from May 29 to June 1. James attended the IFIA Japan exhibition and visited Aloecorp's distributors in Japan.

IFIA Japan is by far the topmost food ingredient and additive exhibition in Japan and also one of the leading food ingredient and additive shows in Asia. It features exhibitors from the US, Korea, China, Belgium, Australia, and India, in addition to local exhibitors. The total number of exhibitors comes to over 300. Products exhibited at IFIA consist mainly of two categories: one is food chemicals such as sweeteners, acidulants, emulsifiers, stabilizers, preservatives and flavors (less than 30%); the other is raw natural food ingredients or their extracts (over 70%).

Visitors are mainly purchasing or R&D personnel from food manufacturers and food ingredient distributors all over the world. The total number of visitors is over 30,000 according to historical statistics.

Aloecorp China's new distributor for the food sector, Higuchi, exhibited at the show and received about 20 enquiries on aloe. IFIA provides a great opportunity for Aloecorp to gain

exposure and influence in food ingredients circles in Japan.

19 공장 워크샵



알로콥 중국 공장관리자 이안 주씨가 미국과 멕시코에서 진행한 4개월에 걸친 파종 및 생산에 관한 연수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 특수 워크샵은 회사 내 여러 부서의 직원들 모두에게 공장의 건설과 해외 교육 여건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안은 경영팀 및 영업팀을 대상으로 공장의 향후 건설계획에 대한 세밀한 보고를 하였다.

- 공장 건설 계획, 과정 및 일정
- 공장 조직 및 인사 계획
- 생산 관리

워크샵을 통해 모든 관련 부서가 공장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명확히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완공에 대비해 세심하고도 면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Factory Workshop

Ian Zhu, the Factory Manager of Aloecorp China, finishing administering a 4-month overall training program on planting and production for employees in the USA and Mexico. The company held a special workshop to enhance understanding among colleagues from various departments regarding the factory's construction and overseas training conditions. Ian made a thoroughly detailed report on the factory's future building to the Management and Sales Departments.

- Factory production process, planning & construction schedule

- Factory organization structure & human resources planning
- Production management

All the relevant departments left the workshop with a clearer understanding about the factory, and will make full and careful preparations for the factory's opening.

20 농장 워크샵



알로콥 미국 고문인 닥터 왕이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동안 중국 완닝에 위치한 농장을 방문 하였다. 몇 년 전 이곳 농장에 심어진 알로에의 성장은 원활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내내 엄청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발전이 없는 상황이었다. 농장 직원들은 이러한 침체의 원인에 대해 점점 더 의문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알로콥 중국 한대표가 닥터 왕을 초대하여 기술적 교육 및 자문을 부탁한 것이다.

- 6월 14일 : 알로에 파종 기술에 대한 소개 1호 농장 방문 및 자문, 2호 농장 방문 및 자문
- 6월 15일 : 알로콥 중국 관리운영절차(SOP) 검토 및 수정, 중국의 특수한 환경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SOP 작성

닥터 왕은 불량 알로에에 대한 신중하고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관 및 파종에 대한 여러 훌륭한 조언을 남겼다. 앞으로 그의 노련한 지도 하에 농장 직원들이 모두 함께 적극적이고 개선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알로에 작물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멀지 않은 미래에 새로운 풍요의 장을 열 것이라 굳게 믿는다.

Farm Workshop



From June 13 to June 15, 2007, Dr. Wang, the Advisor of Aloecorp USA, was invited to visit the Wanning Farm, China.

The aloes we planted here a few years ago have grown very well. However, there hasn't been a breakthrough for the past year, even though tremendous human power, material and financial resources were poured into them. The employees at the farm are becoming increasingly puzzled as to what has caused this stagnancy, which is a serious issue for us to ponder. With this in mind, Mr. Han, the CEO of Aloecorp China, invited Dr. Wang to Hainan for the purpose of technical instruction and consultation.

- June 14 : Dr. Wang introduced Aloe planting technology. 1st Farm visit and consultation 2nd Farm visit and consultation
- June 15 : Discussed and revised SOP of China, and drafted new SOP suited to China's specific conditions.

Dr. Wang made a careful and detailed analysis of the bad Aloe, and gave us many good suggestions on the irrigation and planting. We believe that under Dr. Wang's experienced direction, we will band together in taking active and superior measures to ensure that our aloe crops will continue to improve in their growth, ushering in a new period of prosperity in the near future.

21 알로corp 중국, 남양 중국 바베큐 파티



6월 9일 영업담당 제임스 양과 인사담당 줄리아 왕의 제안으로 중국 하이난성 하이코우의 명소인 홀리데이 비치에서 바베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 대다수의 열렬한 성원으로 모든 준비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먹거리, 마실거리 등을 포함한 쇼핑 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준비과정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 조편성을 하여 바베큐 파티의 갖가지 부문을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오후 6시, 참여인원 모두가 "서로를 대접하고 다 함께 즐기자"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원한 바다가 눈앞에 들어온 순간, 우리의 머릿속엔 '수영'이라는 단어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잔잔한 바람을 얼굴에 맞으며 우리는 흰구름이 뜬 푸른 하늘 아래서 백사장과 파란 바다의 운치를 만끽하고 쌓인 피로를 풀었습니다. 몇몇은 기꺼이 동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몇몇은 신나게 사진을 찍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자유롭게 수영을 즐겼습니다.

7시 30분쯤, 지글거리며 익는 소고기와 닭고기, 소세지 냄새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바베큐 주변에 모여 모두들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대화의 꽃을 피웠고, 우리의 웃음소리가 온 해변에 울려퍼졌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서로간의 의사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이번 파티로 인해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을 다시 한번 실천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며 우리는 팀워크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하였습니다. 파티를 위해 각각 다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내면서 우리의 직장생활, 일상생활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빌어 에코네시안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ALOEORP CHINA&NAMYANG CHINA - BARBEQUE PARTY



Proposed by James Yang, our sales manager, and Julia Wang, our HR manager, we held a barbecue party on the famous Holiday Beach in Haikou (Hainan Province, China) on June, 9th. Most of the colleagues showed very strong enthusiasm that everything went smoothly. According to the experience and the needs, we made a list of purchases including foods, beverage and other things we should prepare. In order to manage it successfully, smaller groups were divided to be in charge of different parts of this BBQ party.

At 6 p.m., everyone got together for a common aim-SERVE EVERYONE & ENJOY OURSELVES! The moment the blue sea appeared in front of us, an idea flashed in our mind suddenly - Swimming! With gentle wind kissing our faces, we enjoyed the white beach, blue sea under the blue sky and white clouds! How relaxing! Some were enjoying serving others willingly, some were taking photos happily, and others were swimming freely.

At about 7:30 p.m., the aroma of sizzling beef, chicken wings and sausages attracted us. During the BBQ, we were eating, drinking, singing, chatting, etc. The sound of laughter filled the whole seaside. It is vital to hold activities like this that promote mutual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fact, it was this party that made us put our SERVANT LEADERSHIP into practice again! By taking part in this event, we gained a better understanding of teamwork. All of the members played not only different, but also important roles in this BBQ party, as we do in our daily work and lives!

And last but not least,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all ECONETians a happy and healthy life!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22 안중근 의사 단지(斷首塚) 동맹비 이전 설치완료



2007년 6월 6일, 한국의 현충일에 맞추어 유니젠-러시아 법인에서는 작지만 뜻깊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13일 유니젠-러시아 법인에서 해체하여 보관 중이던 안중근 의사 단지

동맹비의 이전 건립을 완료하는 행사였다. 때 맞추어 법인을 방문한 김동식 유니젠-코리아 사장님과 조태형 CTO 사장님 두 분께서도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여 주셨다.

이전 장소는 농장 정문과 나란히 마주하는 넓은 공터에 새롭게 조성되었으며 뒤로는 시원하게 강물이 흐르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안중근 단지 동맹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곳이다.

Relocation of the Ahn Jung-geun Finger-Severing Pact Monument Completed

A small yet meaningful event by Unigen Russia took place on June 6, 2007 to coincide with Korea's Memorial Day. The event celebrated the complete relocation of the Ahn Jung-geun Finger Severing Pact Monument, which had been dismantled earlier by Unigen Russia on November 13, 2006, for the relocation. The day's event was particularly meaningful as Unigen Korea's President Don Kim and CTO Taehyoung Jo attended the event, while on their visit to Unigen Russia.

The relocated monument is now situated in a wide open space facing the Russia farm's main gate. The site's nature-friendly environment, with a cool river flowing in the background, superbly sets off the monument.

ECONET Subsidiary News

신입사원 / New Hire



▲ 윤금수 차장, 자금팀,
에코넷 한국 홀딩스/
Kumsoo Yoon, Deputy Senior
Manager, Finance Team ,
ECONET Korea Holdings



▲ 최은미, 경영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Eunmi Choi, General Management
team, Staff, Univera Korea



▲ 유신애, 식품연구팀,
유니베라 한국/
Shinae Yu , Institute of Life
Science, Researcher,
Univera Korea



▲ 서나 리드, 고객관리 사원/
Sunna Reed,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 크리스 웰른,
유니베라 스토어 어시스턴트/
Chris Whalen, Univera Store Assistant



▲ 토마스 레데스마, 인턴,
알로컴 텍사스/
Tommy Ledesma,
Summer Intern for Aloecorp in
Texas



▲ 환 아후마다, S&R 사원,
알로컴 텍사스/
John Ahumada,
S&R Clerk for Aloecorp in Texas



▲ 아르만도 코로나도, 처리기사,
알로컴 텍사스/
Armando Coronado,
Processor for Aloecorp in Texas



▲ 알폰소 세르다, 농부, 힐탑가든/
Alfonso Cerda,
Farm Worker for Hilltop Gardens



▲ 콜레시니크 이리아 알렉세브나,
유니젠 러시아/
Kolesnik Irina Alekseevna,
Unigen Russia



▲ 니체발 갈리나 알렉산드로브나,
유니젠 러시아/
Nechval Galina Alexandrovna,
Unigen Russia

기타 - 사진제출 안하신 분의 명단입니다.
Note for those who have not submitted their photos.

- ▶ **Unigen USA**
- 리디아 브라우넬, 임상 실험 상무/
Lidia Brownell, Director of Clinical Research

New Hire

부서이동 소개 / Transfers



◀ 박찬영 대리, IT팀, 유니젠 한국 ⇨
경영정보팀, 에코넷한국홀딩스(파견)
Chanyoung Park, Assistant Manager, IT Team,
Unigen Korea ⇨ IT Shared Service Team,
ECONET Korea Holdings

기타 - 사진제출 안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Note for those who have not submitted their photos.

▶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 라이 하이펑, 부장, 원예과 ⇨ 과장, 농장1, 알로컴 중국
Lai Haifeng, Senior Manager, Gardening ⇨
Manager, 1st Farm, Aloecorp China
- 웡 춘푸, 과장, 농장1 ⇨ 과장 농장3, 알로컴 중국
Weng Chunfu, manager, 1st Farm ⇨
Manager, 3rd Farm, Aloecorp China

Transfer

경조사 소식 /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네이처텍 / Naturetech



◆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7월 7일 김영태 사장의 아들인 김정우군의 결혼식이 독
산동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신
랑 신부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Congratulations (Weddings)

Best wishes for the wedding of Jeongwoo Kim, President
Youngtae Kim's son, which took place on July 7 at the
Novotel Ambassador Doksan.

◆ 출산을 축하합니다.

지난 6월 26일 오전 11시 37분에 연구개발팀 표한중 선임연

구원의 둘째 아들(표인호)이 태어났습니다.



◆ Congratulations

At 11:37 in the morning, Senior Researcher Hanjong Pyo
of Research Development Team gave birth to his second
son, Inho Pyo. Congratulations.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 축하합니다.

지난 6월 2일 경인 영업팀 박영수 대리의 첫째 딸 박지민양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 Congratulations (Births)

Congratulations to Sales Dept. Assistant Manager Yeongsu Park on the birth of his first daughter, Jimin Park, on June 2.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7월 1일 마케팅본부 마케팅기획팀 이혜정 사원의 외조 모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The Maternal Grandmother of Staff Hyejung Lee(Marketing Planning team) passed away on July 1. We offer our deepest condolences.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출산을 축하합니다.

지난 6월14일 유니젠 한국 생리활성검정팀의 최병일 연구원의 딸(최시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출산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to Researcher Byongil Choi (BioAssay & Discovery Team) on the birth of his daughter, Siwon Choi,

on June 14. Congratulations.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 결혼을 축하합니다.

물류센터 리더인 케이티 힐러리가 8월 25일 신부가 됩니다. 힐러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Weddings)



Congratulations! Warehouse Leader Katy Hilleary is getting married in August 25th.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 출산을 축하합니다.

판매 마케팅 코디네이터인 메트와 제이시 얼리 와인 부부가 예쁜 여자 아기를 얻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오전 9시 23분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조이 엘리자베스 앤 얼리 와인으로 3.72Kg의 건강한 몸무게와 50.8cm나 되는 큰 키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부부의 자녀 출산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to Mette and JC Earlywine (Sales and Marketing Coordinator, Unigen USA) on the arrival of their new baby girl, Zoe Elizabeth Anne Earlywine. She came into this world on May 25 at 9:23 A.M, weighing 8 pounds, 2 ounces and a whopping 20 inches!



생일자 소식 08~09

Birthday in August & September

Happy Birthday

에코넷 한국 홀딩스
ECONET Korea Holdings



◆ 8/14 김진희
Jinhee Kim



◆ 9/1 박정석
Jungsuk Park



◆ 9/2 손정주
jungjoo Son

네이처텍
Naturetech



◆ 8/3 임진희
Jinhee Im



◆ 8/5 전영숙
Youngsuk J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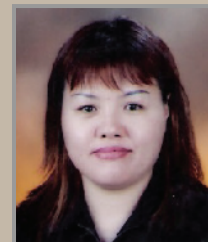
◆ 8/6 민병국
Byounggug Min



◆ 8/8 양순례
Soonye Yang



◆ 8/10 이해원
Haewon Lee



◆ 8/11 추경미
Gyeongmi Chu



◆ 8/13 김은미
Yeunmi Kim



◆ 8/15 김정은
Jeongeun Kim



◆ 8/17 유후재
Whojea Yoo



◆ 8/18 강명숙
Myongsuk Kang



◆ 8/23 박명옥
Myungok Park



◆ 8/27 정혜경
Hyekyung Jung



◆ 8/27 이영숙
Youngsuk Lee

Happy Birthday



◆ 8/29 임재숙
Jaesuk Im



◆ 8/31 김정순
Jungsoon Kim



◆ 8/31 손남숙
Namsuk Sun



◆ 9/6 김태옥
Taeok Kim



◆ 9/7 오삼환
Samwuan Oh



◆ 9/9 박연호
Hoya Park



◆ 9/17 정중희
Jonghee Jung



◆ 9/17 강경진
Kyungjin Kang



◆ 9/18 김수현
Suhyun Kim



◆ 9/20 오선탥
Suntack Oh



◆ 9/26 김진완
Jinwan Kim



◆ 9/28 이혜정
Hyejung Lee



◆ 9/11 하정순
Jungsoon Ha



◆ 9/11 김용관
Yungkhan Kim



◆ 9/12 이재현
Jaehyon Lee



◆ 9/15 윤정필
Jungpil Yun



◆ 9/17 양승원
Seungwon 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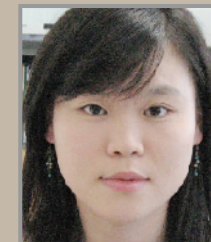
◆ 9/19 최정환
Jungwhan Choi



유니젠 한국
Unigen Korea



◆ 8/1 차지민
Jimin Cha



◆ 8/11 서지은
Jieun Seo



◆ 8/14 이강우
Kangwoo Lee



◆ 8/22 김영선
Youngsun Kim



◆ 9/2 성수경
Sookyung Sung



◆ 9/20 유승환
Seunghwan Yoo



◆ 9/24 서재호
Jeaho Seo



◆ 9/27 노윤향
Younhang No



유니베라 한국
Univera Korea



◆ 8/1 조은철
Eunchull Cho



◆ 8/2 김종수
Jongsoo Kim



◆ 9/4 오미선
Misun Oh



◆ 9/9 남정범
Jeongbum Nam



◆ 9/29 박종성
Jongseong Park



에코넷 미국 홀딩스
ECONET USA Holdings



◆ 8/3 데이브 콜먼
Dave Coleman



◆ 8/13 로비 밴 고름
Robbie Van Gorkom



◆ 8/4 서정범
Jungbum Seo



◆ 8/23 강지철
Jichul Kang



◆ 8/23 김용빈
Youngbin Kim



◆ 8/26 조용호
Yongho Cho



◆ 8/27 방상학
Sanghak Bang



◆ 9/9 이광훈
Kwanghoon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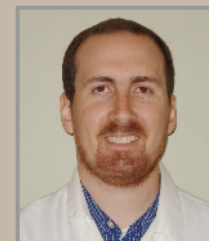
유니젠 미국
Unigen USA



◆ 8/1 에드 클라크
Ed Clark



◆ 8/12 데이브 멘러브
Dave Menlove



◆ 8/20 마이클 잔
Michael Zahn



◆ 9/19 지네트 홀트
Jeanette Holt



유니베라 미국
Univera USA

Happy Birthday



◆ 8/10 웨스 허프
Wes Huff



◆ 8/18 아메드 버살리
Ahmed Bersali



◆ 8/27 닉 페리스
Nick Farris



◆ 8/27 쉼라 헤이즌
Sheila Hazen



◆ 8/27 태미 덴마이어
Tammy Danmeyer



◆ 8/27 태미 시몬스
Tammy Simmons



◆ 8/15 호세 가라이
Jose Garay



◆ 8/19 알리시아 마르띠네스
Alicia Martinez



◆ 8/20 후안 코로나도
Juan Coronado



◆ 8/26 까르멘 모랄레스
Carmen Mor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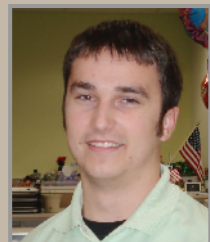
◆ 8/28 블랑카 벨리 뮤노즈
Blanca Nelly Munoz



◆ 8/31 루모나 루이즈
Rumona Ruiz



◆ 9/1 테리 베이커
Teri Baker



◆ 9/2 브렌넨 허쉬
Brennon Hirschi



◆ 9/3 크리스탈 마리스크알
Kristal Mariscal



◆ 9/8 토드 쉼스키
Todd Shum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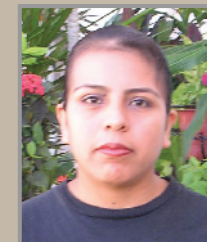
◆ 9/14 캐런 휴턴
Karen Hutton



◆ 9/17 스투어트 오킬트리
Stuart Ochiltree



◆ 9/1 콘수엘로 에레라
Consuelo Herrera



◆ 9/19 산 후아나 아르멘타
San Juana Armenta



◆ 9/24 아르놀포 가르시아
Arnulfo Garcia



힐탑가든
Hilltop Garden



◆ 8/24 비아트리즈 다미안
Beatriz Damian



◆ 8/27 산토스 살리나스
Santos Salinas



◆ 9/22 디온 모린
Dionne Morin



◆ 9/23 크리스틴 네일즈
Kristen Neils



◆ 9/25 줄리 다비
Julie Darby



알로콥 미국 (텍사스)
Aloecorp USA (Texas)



◆ 8/13 제리 휘게로아
Jerry Figuer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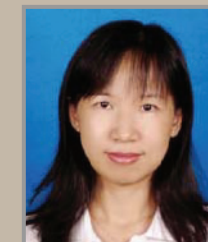
◆ 8/20 조 롤단
Joe Roldan



◆ 9/14 알폰소 세르다
Alfonso Cerda



알로콥 중국 & 남양 중국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 8/17 엘리스 핑
Alice Feng



◆ 8/28 수잔 핑
Susan Peng



◆ 9/12 빈센트 탕
Vincent Tang



◆ 8/21 짐 페레즈
Jim Perez



◆ 8/26 믹 앤더슨
Mick And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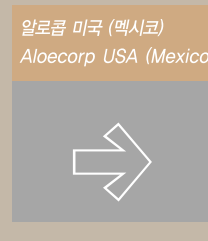
◆ 9/5 켄 존스
Ken Jo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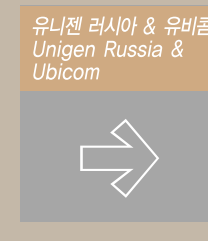
◆ 9/18 노마 가자
Norma Garza



◆ 9/20 김수겸
Joseph Kim



알로콥 미국 (멕시코)
Aloecorp USA (Mexico)



유니젠 러시아 & 유비콤
Unigen Russia & Ubicom



◆ 9/16 세미라쉬코
스베뜨라나 아나톨리에브나
Semiraseko Svetrana
Anatolyevna

기타 - 사진 제출 안하신 분들의 생일자 명단입니다.

Misc. - The list of those who had a birthday but did not submit their pictures

- ▶ Unigen USA
 - 8/7 마크 브리멜로우 Mark Brimelow
 - 8/18 드셡 왕 Desheng Wang
- ▶ Aloecorp USA (Texas)
 - 9 /26 유리 보로베츠 Yuri Vorobets
- ▶ Aloecorp USA (Mexico)
 - 9/7 오시엘 마르띠네스 Osiel Martinez

에코넷에서 나오는 제품과 에코네시안이 함께 찍은 사진 콘테스트 당첨자 소개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총 208명의 에코네시안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결과를 낸 것입니다. 좋은 사진들을 많이 응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위 골드를 먹고 있는 우리 딸

알로엑스 골드를 먹으면 우리 딸처럼 이뻐진답니다!

응모하신 분 : 김효재 대리, 중부영업팀, 유니베라 한국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First Prize

My daughter eating Aloe-X Gold Activaloe you can become as pretty as my daughter if you eat Aloe-X Gold Activaloe.

Submitted by : Hyojae Kim, Jungbu Sales Team, Univera Korea (A gift certificate worth \$150 will be awarded.)

Photo Contest

ECONETians submitted photos of themselves using ECONET products and the winners were announced in this photo contest.

The winning photos were chosen after 208 ECONETians cast their votes. Thank you for submitting your photo entries. We hope that more people will participate in the next contest.



2위

얼굴에 그리기 뜨거운 여름, 선크림은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둘 다 에코넷 웨이의 열렬한 독자자들입니다. 이곳 에코넷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사진 속 "얼굴에 그리기"가 제 여자친구의 아이디어였다는 사실! 자기야, 고마워~!

응모하신 분 : Michael Yue, Sales Representative of International, Aloecorp China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Second Prize Draw on Your Face In the hot summer, where is your sunscreen?

We are both enthusiastic readers of ECONET WAY. It is delightful to meet you here in ECONET.

Here I have to emphasize that this is my girlfriend's idea for "drawing on your face." Thanks, sweetie!

Submitted by : Micheal Yue, Sales representative of International, Aloecorp China (A gift certificate worth \$100 will be awarded.)



3위 레이시 오피스의 첫번째 알로에 종자

워싱턴의 에코넷에서는 처음으로 싹을 돋운 알로에이다. 이 종자는 올해 초 제이시 얼리 와인인이 발견한 이래 화분에 옮겨 심고 계속 보살피는 것이다. 처음 이 싹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미처 몰랐던 식물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던 사실을 제이시는 무척 들떠서 얘기해 주었다. 그는 알로에를 옮겨 심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재료들을 노마 가자와 밥 앱스에게 제공받아 이 새롭고 흥미로운 창조물을 옮겨 심을 수 있었다.

응모하신 분 : 제이시 얼리 와인, 판매 마케팅 코디네이터, 유니젠 미국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Third Prize Lacey Office's First Aloe Pup

This is the first aloe pup to sprout at ECONET in Washington. The Pup was discovered early this year by JC Earlywine, who repotted it and has been caring for it since. When JC found the sprout this year, he was very excited to share, as he explained that the amazing aloe plant has awakened in him a passion for plants he didn't know he had. JC worked with Norma Garza and Barb Apps, who provided him with the tools and material to transplant this new and exciting creation.

Submitted by : JC Earlywine, Sales and Marketing Coordinator, Unigen USA (A gift certificate worth \$50 will be awarded.)



아차상 1

화장품의 품질보증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저희가 품질보증한 리니시에 화장품 쓰시고 리니시에 모델처럼 예뻐지세요~

응모하신 분 : 네이처텍 화장품 QC 담당자들 단체 응모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1 *Guaranteeing quality assurance.*

Everyone, use guaranteed quality L'initie and you'll look as great as the L'initie model~

Submitted by : NatureTech cosmetic QC representatives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 2

생명을 위한 릴레이 이벤트에서 암연구를 후원하고 있는 유니베라

안드레아 킬몬(고객 관리팀 사원)과 내 딸 아이가 생명을 위한 릴레이에 참가하여 유니베라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을 위한 릴레이 이벤트는 생존을 축하하고 아메리카 암 연구 센터의 연구 프로그램을 후원할 자금 모금을 위해 갖가지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이벤트이다. 하룻밤을 새야 하는 이벤트에 참여한 각 팀들은 학교와 축제 장소 혹은 공원에 모여 차례로 걷거나 뛰었다. 각 팀은 최소한 한 사람의 팀 멤버가 항상 트랙에 남아 걷거나 뛰도록 해야 했다. 에코넷 미국은 12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19명의 사람이 걷기에 동참했으며 총 1750 달러를 모금했다.

응모하신 분 : 줄리 개리슨, Operations 회계 과장, 유니베라 미국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2

Univera USA Supporting Cancer Research at the Relay For Life!

Univera Spirit at the Relay for Life Event is shown by Andrea Tillmon (Customer Care Representative) and her daughter. Relay For Life is a fun-filled overnight event designed to celebrate survivorship and raise money for research and programs for the American Cancer Society. During the event, teams of people gather at schools, fairgrounds, or parks and take turns walking or running laps. Each team tries to keep at least one team member on the track at all times. ECONET USA raised a total of \$1750.00 with a team of 12 people and 19 people participated in the walk.

Submitted by : Julie Garrison, Operations Accounting Manager, Univera USA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 3

마이애미가 사무실에 왔는데 조금씩 짜증을 부리기 시작할 때 리마가 에센셜을 건네주자 너무 좋아했다. 왼쪽부터 리마 암스트롱 (고객 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 마이애미 그리고 안젤리타 (컴플라이언스 스페셜리스트, 에코넷 미국 홀딩스)

응모하신 분 : 안젤리타 레이방, 컴플라이언스 스페셜리스트, 에코넷 미국 홀딩스 / 리마 암스트롱, 고객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3

Myami loves her Essentials

Myami came in to visit and was getting a little fussy but Rima gave her the Essential product and she loved it. From left, Rima (Customer Care, Univera USA) , Myami and Angelita (Compliance Specialist, ECONET USA Holdings)

Submitted by : Angelita Rabang, Compliance Specialist, ECONET USA Holdings / Rima Armstrong, Customer Care, Univera USA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 4

시스코는 리제니 펫을 너무 좋아합니다. 응모하신 분 : 사라 쇼, 판매 & 마케팅 분석가, 유니베라 미국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4

My doggy Cisco loves Regenipet...

Submitted by : Sarah L Shaw, Sales & Marketing Analyst, Univera USA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 5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리니시예가 오면 아름다움도 멀지 않으리!

에코네시안으로서 우리 회사의 뛰어난 제품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 P. B. 셸리 "신비한 정원에서 찾은 자연의 혁명"이 다가옵니다? - 맨디

응모하신 분 : 셸리 & 맨디, 알로corp 중국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5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If Linitie comes, can prettiness be far behind? As an ECONETian, I am proud of our great products!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 P. B. Shelley If comes, can prettiness be far behind? The "Natural Revolution from a Mystic Garden" is coming! - Mandy

Submitted by : Shelley & Mandy, Aloecorp China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08월호 퀴즈 & 06월호 당첨자 발표

지난 호 퀴즈정답 (1. 이퀄라이징 베이스 SPF15, 이퀄라이징 리퀴드 파운데이션, 이퀄라이징 스킨케어, 이퀄라이징 투웨이케익 SPF25 2. 홍삼액 골드)

-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상품으로 리니시에 이퀄라이징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품목 중 1가지를 드립니다.)
 - 박소윤, 영업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 김정희, CFTeam, 네이처텍 • 최은미, 경영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 박은혜, 품질관리팀, 유니젠 한국
 - 마이클 유에, 해외영업사원, 알로콥 중국 • 제니 헌츠맨, 상임재정분석가, 커미션부서, 유니베라 미국
 - 테리 베이커, 고객관리 상무, 유니베라 미국 • 보니 앤더슨, 고객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
 - 사라 루버트, 고객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 • 안젤라 베이런, 고객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
- ▶ 8월호 사진공모 이벤트 당첨자 소개는 86page에 있습니다.
- ▶ 2007년 10월호에는 이번 여름 휴가 때 찍은 사진을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등: 150,000원 상품권(1명) • 2등: 100,000원 상품권(1명) • 3등: 50,000원 상품권(1명)

08월호 ECONET Way 퀴즈!

2007년 7월 9일 () 역사에 기록될 소중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그것은 바로 지난 2006년 2월부터 품질혁신, 원가경쟁력 강화, R&D 역량강화, 신규시장 개척 및 영업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 이 도입한 6-Sigma 경영혁신이 노동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업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 ▶ 응모하실곳 : kaoh@univera.com 또는 92Page 각사 기자들 이메일
 - 응모하신분들 중 당첨자에게는 리니시에 밸런싱 스킨케어를 드립니다.

August Quiz and Winners of the June Quiz

Answers to the June quiz (1. Equalizing Makeup Base, SPF15 / Equalizing Liquid Skin Foundation / Equalizing Skin Cover / Equalizing Two Way Cake, SPF25 2. Red Ginseng Tonic Gold)

- ▶ Winners of the June Quiz (All winners will receive the L'initie Equalizing Base Makeup product.)
 - Soyoon Park, Sales Planning Team, Univera Korea • JH Kim, CFTeam, NatureTech
 - EM Choi, General Mangement Dept, Univera Korea • Eunhye Park, Quality Management Team, Unigen Korea
 - Michael Yue, Sales representative of International, Aloecorp China • Jenny Huntsman, Senior Financial Analyst, Commissions Dept., Univera USA
 - Teri Baker, Director of Customer Care, Univera USA • Bonnie Anderson, Customer Care, Univera USA
 - Sarah Rubbert, Customer Care, Univera USA • Angela Bayron, Customer Care, Univera USA
- ▶ Winners of the photo contest for our August issue are announced on page 86.
- ▶ Please enter the next contest in October by submitting a photo from your summer vacation.
 - First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150 (1 person) • Second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100 (1 person)
 - Third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50 (1 person)

August ECONET WAY Quiz

A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history of () was achieved on July 9, 2007. () 6-Sigma management processes were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Labor on January 2006 and they have been implemented to achieve quality improvements, costs savings, stronger R&D investments, successful expansion into emerging markets, a stronger sales force, and better executive training.

- ▶ Please send answers via e-mail : Page 92, email addresses of reporters from each company
 - All contestants who submitted the correct answer to the quiz will receive a L'initie Balancing Skincare product.

ECONET Way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더욱 사랑 받는 '에코넷웨이' 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kaoh@univera.com 또는 각사 기자들 이메일

1. 이번 호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내용 혹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 에코넷웨이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소재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3. 에코넷웨이의 잘못 표기된 부분을 지적해주세요.



We strongly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Join Us in Making ECONET Way

To ensure the continued improvement of ECONET Way, we solicit the valued opinions of our readers. ⇨ email addresses of reporters from each company

1. Which part of this issue did you find the most satisfactory, or the most in need of amendment?
2. If you have any stories or topics you would like to share through Econet Way, submit them freely to our editorial staff.
3. Let us know if there were any typographical errors in Econet Way.

에코넷웨이에 바란다 / Story Suggestions for ECONET Way

에코네시안 여러분!

작은소식이라도 각 사의 기자분들께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기사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Suggestions for ECONET Way!”

Please e-mail the latest news to your company's reporter listed below. No matter how trivial the item, your updates will be very helpful in assembling the next issue.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오경아 대리, 비서팀, kaoh@univera.com
Kyoungah Oh, Assistant Manager, Secretary Team

네이처텍 / Naturetech

최순미 대리, 경영기획팀, smchoi@namyangglobal.com
Sunmi Choi, Assistant Manager, Managemnet Planning Team

전영숙, 생산기술팀, et2388@namyangglobal.com
Youngsuk Jun, Production Technology Team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박정아 팀장, 고객지원팀, aloever@univera.com
Jeong Ah Park, Team Manager, Customer Service Team

김경미 대리, 전략기획팀, kkm99@univera.com
Kyungmi Kim, Assistant Manager, Strategy & Planning Tea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최재영 차장, 해외영업팀, jychoi@unigen.net
JaeYoung Choi, Manager, Overseas Sales Team

장미라, 총무인사팀, happycode@unigen.net
Mira Jang, HR & General Affairs Team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이세현, SeanL@econetwest.com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Manager

밥 풀턴, 지역사회 봉사 코디네이터
Barb Fulton, Community Outreach Coordinator

타라 아담스, 인사부 보조
Tara Adams, HR Assistant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김수겸 상무, 알로콥 생산관리, joseph@aloecorp.com
Joseph Kim, COO of Aloecorp Operations

알로콥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줄리아, wj20061204@hotmail.com
Julia, HR Manager, Management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허영문 대리, ympost@hanmail.net
Youngmoon Heo, Assistant Manager



에코넷 가족 / ECONET Family

네이처텍 / Naturetech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 :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namyanglobal.com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 (02)467-9988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 (02)467-9988
www.univera.co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 :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 (041)529-1510, Fax : (041)529-1599
www.unigen.net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300, Fax : (360)413-9185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500, Fax : (360)413-9150
www.univeralifesciences.com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200, Fax : (360)413-9135
www.unigenpharma.com

알로콥 미국(생산) / Aloecorp USA (Production)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 (956) 262-2176 Fax : 956-262-8113
www.aloecorp.com

알로콥 미국(영업) / Aloecorp USA (Sal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400, Fax : (360)413-5036
www.aloecorp.com

알로콥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 (898)-6674-5400, Fax : (898)6674-3400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103-A 4th Floor, Okeansky Prosect,
Vladivostok, Russia, 690002
Tel: 7-4232-42-20-95, Fax : 7-4232-42-13-36

uniVera



L'initié
PhytoWhite



파이토 화이트를 만난 그녀, 하얀 빛에 물들다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 라인은
천연 미백 약용 식물 성분이 4단계 솔루션을 통해
피부 미백을 실현하는 스페셜 케어 라인입니다.

Skin Healing Program - 리니시에